時計塔
SIGETOP

2008년 7월 15일 발행 | 서울大學校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 제35권 3호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尹 孝 允
편집인: 金 炳 晳
편집위원: 徐 亮 盧 在 煜 徐 仁 錫 李 元 澤
자문위원: 盧 鎔 冕 李 熙 景 許 善 行 宋 寬 鎬

취 임 사

Lend me your ears lend myself to you

윤 효 윤(69)

연륜과 지혜가 뛰어나신 훌륭한 선배동문들의 사양과 이어진 권유에 의하여 금번 미중동창회 회장의 중책을 이어받은 윤효윤입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지상으로 이사를 드리게 됨을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이 개교한 이래, 지난 60년 여년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의학교육, 연구, 진료를 통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빈곤한 재정적 여건하에서도 국가와 사회에 많은 혜택을 쥐어주며, 생명과학을 책임지는 과학자로서의 소명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곳이 바로 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니겠습니까!

35년전 젊은꿈을 간직한채 도미하여, 미국의 첨단 의료시설과 의술을 보고 익히면서도, 늘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것이, 바로 이 서울대학교 의학대학의 동문이라는 자부심 이었습니다.

Cardiologist로 아직도 active한 practice를 하고 있기에, 저는 이런 중책을 맡기엔 여러면에서 벅차다는 것을 알고있으며, 단지 전력을 다해 성심껏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72년 초대회장 이광수 선배님을 선두로 우리 미주동창회가 출범한 이래, 세상은 참으로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또 그와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똑같은 issue를 face하며 srtuggle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문으로서 약 1,200명이 이 미주에 살고 계시는데(시계탑이 우송되는 동문의 숫자), 단지 550명 정도의 동문만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또 컨벤숀에 참석하시는 동문은 매년 평균, 회비납부하시는 동문의 사분의 일도 안되는 120명 정도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총동창 동문되는 분들중에 50% 이상이 회비를 안내시고 있으며, 또 총동창회 동문의 단지 10%만이 Annual Convention에 참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90%가 되는 이 silent majority의 참여가 없어서는 우리 동창회의 앞날이 밝지 않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합쳐서, 이 동창회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의학자로서의 소명감을 일깨워주고, 또 젊은꿈을 키워준 우리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위해서도, 우리는 서로를 embrace하며 great organization으로 이끌어 나가야만 되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first and foremost we, all should engage in Grass Root Campaign for active member contacts in every state.

각 학년대표와 각 주 대표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킬수 있는 "Membership Committee"를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Green Project(서인석 동문의 수고가 많음)를 더욱 활성화시켜, 모교에서부터 미주로 training이나 research하러 오시는 young generation의 동문들도 한분도 빠지지 않고 동창회에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후배들을 도운다는 의미에서도 Green Project에 많은 contribution을 해주시면 이 젊은 동문들로부터 high level of participation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Let all of us should come together and support this effort. it sill be a matter of continuing efforts and discussions as to how best we accomplish it going forward.

동문들의 동창회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encourage 시켜가며 더욱 더 저변확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비록 회장단은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난 36년동안의 각 회장단이 이루어 놓으신 업적을 계속 유지하며, 더욱 좋은 미래를 내다보는 New beginning이기도 하며 또 renewal을 의미한다 할수 있습니다.

A great organization comes into existence by its great membership, not by the leadership. Whole good is the product of many individual contributions. I seek your guidance and continued help from each and everyone of you.

지난 36대 회장단인 최영자 회장님의 leadership과 여러 임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라스베가스 컨벤숀을 아주 성공적으로 치루신데 대해 다시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7월 미시간에서 뵐때까지 자주 지상으로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님, 후배님 모든 동문 가정에 늘 신의 은총이 있기를 빌며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임 사

동창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희망하면서!

최 영 자(66)

미주서울의대 동창회장직을 맡은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부족한 저로서 회장 책임을 맡아. "Servant-Leadership" 로서 동창회 임무에 힘껏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주신 여러 동문들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금번 운영단들의 아낌없는 희생과 아울러 66년 동문들의 협심단결이 크나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금번 동창회 운영을 통하여 저 자신이 많은것을 배웠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난 일년동안 멋있던 일들을 기억에 남기겠읍니다. 일년동안 계획하였던 여러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야하니 한편으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일년전 제가 취임사를 통하여 네(4)가지 지침이 될 운영방침을 시계탑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미소하나마 그동안 성취된 지침사항들과 앞으로 계속하였으면 하는 희망의 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앞날의 동창희의 번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동창회는 동문들을 위한공동단체:

선후배 동문들께서 모교에 대한 애착심, 책임감, 공동의식을 재활하시고, 많은 동창이 동창회 모임이나 행사에 적극 참석하시도록 추구하였습니다. 젊은 동문들의 동창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그동안 동창회에 안나오셨던 여러 동문들을 운영 임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반대표와 지구대표 회원께도 동창회 본부와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고 동창회행사에 적극 참석하도록 도모하였습니다.

2008년 3월에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onvention 학술회에는 미국과 한국의 여러 동문들의 연사로 구성된 Joint Symposium 학술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젊은 동문들에게 Travel Award를 주어서 젊은 동문들의 참석을 장려하였으며 처음으로 함춘여자동문(9분)들이 과거 학창생활을 동문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번 Alumni Re-union 모임에는 컨벤숀 대회상 처음으로 260명 이상의 동문가족들이 다함께 한곳에서 다양한 유흥을 즐기며 친교가운데 학창시절을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컨벤숀을 이처럼 성황리에 성공토록 뒤에서 말없이 도와주신 수많은 선후배님들을 뵈우니 동문들의 동창회의 사랑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먼 고국에서 모처럼 오신 선후배님들 그리고 미국 각처에서 오신 동기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동창회에 대한 애착과 공동의식에 진심으로 존경드립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베풀어 주신 상당한 기금성원으로 금번 컨벤숀의 잔액기금을 Charity, Green Project and Silver project Committees 운영단 활동계획 자금으로 활당합니다.

12월에는 뉴욕에서 열린 Annual Ball Party에 1990-2001 년도에 졸업한 젊은 동문들을 비롯하여 여러 선후배 동문들이 함께 즐거운 연말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은 두 번에 걸쳐 Annual Golf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또 Silver Project Committee에서는 금년 남아메리카 여행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와같은 프로그램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많은 선후배동문들이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동창회 발전에 공헌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동창회와 긴밀한 관계:

앞으로 미국동창회 회원수가 감소되는것은 주어진 기정사실이므로 한국동창들과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Collaboratory Medical Research Projects 이외에도, 서로 연관된 관계를 개발 개척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08 컨벤숀때에 많은 한국동문께서 연사로 참석하셔서 금번 컨벤숀을 더욱 뜻깊게 하여주셨습니다.

사회 봉사활동 지속 활성화:

새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친목이외에도 사회와 인류복지향상을 위하여, 봉사기여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지도적인 동창회가 되도록 Charity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Ad Hoc Committee 구성을 하였습니다. 정치와 인종, 종교를 떠나서 순수한 인간애를 발휘하여,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인증된 사회봉사단체에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생각이외로, 많은 동문들의 성원으로, Charity Organizations 세 곳에 지원금을 활당함으로써 인류복지향상의 일원으로 보람있는 사회사업에 우리 동문회가 마침내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앞으로 동창회가 사회공동체의 하나의 지도자로서 모범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동문회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십시요.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더 큰 봉사활동을 확장하게될 것입니다. 앞으로 동창회가 지닌 잠재적 역량을 활성화 하는 사회의 존경받는 동문회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Website의 활성화:

그동안 웹싸이트의 유지비용과 사용에 문제가 있었으나, 〈다음면에 계속〉

2007-2008 제2차 대의원회 초록

일시: 2008년 6월 21일(토) 오후 6시
장소: Palisadium Restaurant
Cliffside Park, NJ
사회: 이선희 (81) 총무

참석자:
노용면(55) 박호현(58) 이만택(58)
이운순(58) 김병석(59) 이상무(62)
정정수(62) 한기현(63) 권정덕(64)
한태진(64) 민발식(66) 이명희(66)
이종현(66) 최영자(66) 김홍서(69)
윤효윤(69) 황용규(72) 문대옥(73)
서인석(73) 백승원(79) 이선희(81)
심인보(83) 이영인(86)

Proxy:
김응식(55) 정구영(57) 신상균(58)
김은섭(59) 최종진(59) 한혜원(61)
김택수(63) 이유찬(64) 이홍표(64)
조동준(64) 최준희(64) 이한중(65)
황규정(65) 김은한(66) 이성근(66)
이근웅(67) 한영수(67) 문광재(68)
이건일(68) 인정길(70) 곽승용(71)
오동환(71) 석창호(72) 오용호(72)
최인섭(72) 김동훈(77)

- 최선희 총무 성원보고 (총 93명중 7 명이 2-3 곳의 위원회와 이사, 학년 대표 등 겸직) 24명 참석, 26명 Proxy) 7시 개회를 선언 함.

2007-2008 년 제 1차 delegate meeting 초록을 수정없이 동의, 제청으로 통과.

- 회장 보고 (최영자 회장):

지난 일년간 회장단의 mission을 세 가지의 요점으로 돌아보며 정리하였다. Servent-leadership 으로 첫째, 선후배 동문들이 동창회 활성화를 위하여 서로 연결되고 아껴주는 사이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둘째, 사회봉사 정신으로 charity committee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셋째, 동창회원들의 communication을 위해 시계탑과 website를 improve/활성화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동창회원들께 감사하였다.

- 차기회장 인사 (윤효윤 회장)

내년 연례 학술대회가 7월 4일(토)부터 7월 8일(수)까지 Dearborn, 미시간에 있는 Ritz Carlton Hotel에서 있을 예정임. 호텔비는 $125. 이름난 많은 골프장이 있으며 골프를 안치는 분들을 위한 별도의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중.

동창회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활성화를 위하여 ad-hoc committee로 Membership activation committee를 제안함.

- 총무보고 (최선희 총무)

한해동안 성원해주신 동창들께 감사.

- 재무 보고 (백승원 재무)

금년도 재정은 몇 년 동안의 적자 회계에서 흑자로 돌아섰으며 남은 기금은 Silver Project, Green Project, Charity 기금 등으로 남길 예정임.

Old Business

- 함춘의학상: 최영자 회장은 함춘의학상 기원과 문제점을 상의하였다. 1970년도에 미국 동문들이 상당한 모금을 하여 많은 기금이 한국 함춘회에 기증되었으며 그 업적으로 과거 23년 동안 해마다 미국동문 한사람에게 연구비로서 의학상이 수여되었다. 그러나 2004년에 한국 함춘회에서 정관을 바꾸어 과거 2년 동안 미국 동문들이 의학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되었다. 이 문제를 역대 회장님들께서 한국 하권익 동창 회장님과 상의하였으나 해결이 안되었으며 이사님들의 진정서를 하 회장님께 보내어서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하 회장님께서는 모금 기증과 의학상 수여에 관한 서류를 청구하였으며 이 문제를 이사회에서 상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회답을 보내왔다.

기금을 보낸것의 서류는 없으나 수상자들의 명단을 보내도록 하라는 제안이 있었다.

Committee Reports

- Finance(최순채 위원장) proxy
- Scholarship(오용호 위원장) proxy
- Fund Raising(문대옥 위원장)

summarized the results of the fund-raising efforts which were highly successful this year. Dr Moon asked for future efforts to complete for education grants.

금년도는 성공적인 모금 활동으로 많은 동문들의 성원이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기금을 유치하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함.

- Scholarship Fund Management (이명희 위원장)

2008년 6월 18일 현재 장학기금 $432,355 reflecting 1.0% gain (참고 S&P 500 은 4.0% loss from 1.1.08).

- Research and Fellowship (한혜원 위원장) proxy
- Green Project (서인석 위원장)

서울의대 동아리 그룹인 MEXIM과 성공적인 교류가 있으며 7년 동안 공들인 결과가 나타남. 지난해에 160명 중에서 50명이 해외에 나와 학점을 따고 있다.

2008-2009년도 임기에서 Green Project committee chair로 다시 일하기로 하였음.

- Publication (김병석 위원장)

The committee meeting is planned this month to discuss collaboration with the SNUCMAA website, among other things. He has asked for article contributions for Sigetop, as currently convention-related articles dominate the newspaper.

시계탑 편집 회의가 6월 25일(수)에 있으며 SNUCMAA website (www.SNUCMAA.US)에 시계탑의 기사를 올릴 수 있는지 문의 하였음.

- By-Laws(노용면 위원장)

The committee considers President Choi's request to elevate the Charity Committee (currently Ad-hoc) to a standing committee premature.

최영자 회장의 부탁으로 Charity Committee(현재 Ad-hoc)를 Standing Committee로 승격시키는 것을 위원들과 의논한 결과 다수의 위원들이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라 하였음.

- Advisory & Exchange(이만택 위원장)

특별한 보고사항은 없으며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를 얘기 함.

- Nominating (조동준위원장)

새 이사(2008-2010) 명단에 현 회장단의 총무와 재무가 명단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새 이사진이 구성되어야 함을 조동준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도록 본 회의에서 가결됨.

- Central Office Management (곽승용 위원장) proxy
- Silver Project (한기현 위원장)

현재 Silver Project event로 남 아메리카를 여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경에 유럽여행을 준비 중임.

- Charity Service (황용규위원장)

금년에 세군데(SAM International Inc.,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and Asian Youth Center of NY)에 $3,000 씩의 성금을 주었음. 내년부터 동창회 자체에서 직접 봉사하는 것을 생각 중이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 함.

- Directory/Website (이성근 위원장) 최영자 회장 보고

새 website(www.SNUCMAA.US)를 동문 한 분이(익명) develop 하셔서 많은 동문이 이 website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동문들이 이 website 에 참가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함. 시계탑 기사를 website에 올려 시계탑 비용을 줄이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지.

이 Website가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외에도 우리 동창회를 소개하는 website가 되기를 희망함.

- Convention Chair(이종현 위원장)

많은 선후배님들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김택수 선배님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드림.

- Scientific Chair(이영인 위원장)

CME certificate 가 곧 우송될 것임.

최영자 현 회장이 윤효윤 차기 회장에게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기를 인계한후 오후 9시 30분에 회의를 마침.

총무 이선희(81) 보고

〈전면에서 계속〉 새로운 Website (SNUCMAA.US)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웹싸이트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동문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웹싸이트를 이용하여 시계탑 기사가 실릴 수 있어서 신문발행과 따르는 비용도 줄이고, 더많은 동문들의 의견이 지체없이 반영될 수 있으며 동문여러분의 활동상황, 동정과, 각지부 동기분들의 소식을 서로 교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이외에도 이 웹싸이트를 활성하여 SNUCMAA를 세계각처에 안내할 수 있으며 연구와 정보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조만간 새로운 동창회 Directory가 이 웹싸이트에 게제될 것입니다. 익명을 부디 요구하시는 동문께서 이 웹싸이트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항상 평화가운데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ANNOUNCEMEN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is seeking applications for the 2008 SNUCMAA Research Grant from its members.
The applicant must be in good standing of SNUCMAA of North America
The past participants of the Grant are also eligible.
The proposed research project can be in the area of either clinical or basic science.
The proposal should focus on a topic of importance and of benefit Korea and th United States, and preferably involve collaboration between SNUCMAA of North America and Korea.
The project must have scientific merit, and the proposal must include objectives, methodology, the site of the study, the name of the principal investigator and collaborators if applicable, and the detailed information of the budget.
The recipient must pres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t the following annual scientific convention.
The amount of the Grant is ; $3,000 from the SNUCMAA of North America Won 10,000,000 from SNUCMAA of Korea.
The dead line for the application is August 15, 2008

Please send the original and four copies of the proposal and CVs of investigator(s) to
Chair,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SNUCMAA OF North America
Hie-Won L. Hahn, MD
Jefferson Medical Collage
1025 Walnut Street, Room 910, Philadelphia, PA 19107

은퇴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2월에 보낸 은퇴를 위한 설문의 결과는 3월 라스베가스 년례학술대회때 간단하게 이홍빈 동문을 통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설문의 구체적인 반응입니다. 설문은 시간절약을 위해 check만 할 수 있도록 21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85 동문이 설문에 응답해 주시어 숫자로 조금 미흡한 감이 있지만 동문들의 의중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에는 한 가지 이상으로, 어떤 질문에는 전혀 답이 없어서 총답의 수는 85이상 또는 그 미만이 되었습니다. - Silver Project Committee Chair **한 기 현**(63)

1. 현 거주지에 얼마나사셨습니까?
   a. 3년 이하 (39) b. 3~5년 (15) c. 5년10년 (12) d. 10년 이상 (10)
2. 현 거주지는
   a. House (61) b. Golf Course(14) c. Condo (8) d. Town House (7)
3. 인근의 2 bedroom condo의 가격은?
   a. 350~500,000(32) b. 350,000이하 (21) c. 500~750,000(20) d. 750,000이상(6)
4. Major Airport와의 거리는?
   a. 5~20 miles(37) b. 20~40 miles(24) c. 40 miles이상(9) d. 5 mile이하(3)
5. Full service hospital 과의 거리는?
   a. 5~20 miles(41) b. 5 mile이하(22) c. 20~40 miles(10) d. 40 miles이상(0)
6. 골프, 수영외에 다른 활동이 근처에 있습니까?
   a. 낚시(38) b. Amusement Park(34) c. 경마장(29) d. Casino(25)
7. Concert Hall과의 거리는?
   a. 5~20 miles(40) b. 20-40 miles(23) c. 5mile이하(11) d. 40 miles이상(6)
8. Living Cost?
   a. Moderate(44) b. high(25) c. Low(11)
9. Home Insurance Cost?
   a. Moderate(44) b. high(23) c. Low(14)
10. 자동차 보험료?
    a. Moderate(51) b. high(20) c. Low(8)
11. Property Tax?
    a. Moderate(35) b. high(32) c. Low(11)
12. 한국음식점과의 거리는?
    a. 5~20 miles(46) b. 5 mile이하(18) c. 20~40 miles(8) d. 40 miles이상(7)
13. 한국식품점과의 거리?
    a. 5~20 miles(46) b. 5 mile이하(17) c. 20~40 miles(8) d. 40 miles이상(7)
14. 한국교회와의 거리는?
    a. 5~20 miles(44) b. 5 mile이하(19) c. 20~40 miles(10) d. 40 miles이상(6)
15. 인근에 있는 서울의대 동창의 수?
    a. 5인 이상(53) b. 1~3인(14) c. 3~5인(12) d. 없음 (4)
16. 일년에 악천후(추위, 폭우 등) 골프를 못치는 주의 평균 수는?
    a. 2주 미만(32) b. 6주 이상(21) c. 4~6주(13) d. 2~4주(9)
17. Retirement Complex에 사시면 어떤 activity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a. 단체여행(31) b. Play & Show(24) c. 음악회(22) d. 강의(21)
18. 금년내에 여행할 계획이면 어느 대륙에 먼저 흥미가 있습니까?
    a. 유럽(34) b. 아시아(25) c. 미국내(20) d. 아프리카(10)
19. 여행기간은 얼마가 좋겠습니까?
    a. 7~10일(38) b. 5~7일(34) c. 10~14일(33) d. 5일 이내(1)
20. 같이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
    a. 배우자(41) b. 단체(35) c. 가족(24)
21. 어떤 주제로 여행을 하면 흥미가 많으십니까?
    a. 자연(50) b. 역사(46) c. 미술(18) d. 음악(15)

응답자 중 캘리포니아에 22명, 후로리다에 12명, 그리고 네바다에 5명이 생활하십니다. 이 결과를 보면 전형적인 서울의대 동창은 10년이상 비행장, 병원, 콘서트 홀, 한국음식점과 한국교회에서 5~20마일내에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모든 비용(Tax, 보험료)은 비교적 중간이며, 여행은 유럽에 7~10일 배우자와 함께 가시는 분입니다.

이번 6월에 계획된 남미여행은 시간, 연락, 준비등이 완전하지 못하여 참석한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내년 5월초 유럽여행은 10~14일 구상중이니 지금부터 계획하여 많이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시계탑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2009 Executive Officers

President	Joe H. Yun, M.D.
First Vice President	Jay K. Moon, M.D.
Second Vice President	Luke Yushik Kim, M.D.
Secretary	Dong Whan Oh, M.D.
Treasurer	Christopher Y. Chang, M.D.

2008-2009 Committee Chairman

Finance	Sang Hyun Oh, M.D.
Scholarship	Yong Ho Aun, M.D.
Fund Raising	Young Jo Kwon, M.D.
Fund Management	Michael M. Lee, M.D.
Publication	Damian Byungsuk Kim, M.D.
Advisory & Exchange	Manual Man-Tack Lee, M.D.
Research & Fellowship	Hie-Won Kee Hahn, M.D.
By Laws	Yong-Myun Rho, M.D.
Nominating	Young Ja Choi, M.D.
Green Project	In Suk Seo, M.D.
Silver Project	Ki Hyun Han, M.D.
Office Management	Syng Yong Kwak, M.D.
Charity	Yong Kyu Hwang, M.D.
2006 Summer Convention	James Taesuk Rhyee, M.D.
Scientific Chair	Hyun Sik Chang, M.D.
Counselor	Hahn Joong Lee, M.D.

SNUCMAA Profit & Loss

July 2006 through June 2007

Ordinary Income / Expense

	General S.	Convention	Total
INCOME			
Advertising Incoming	500.00	0.00	500.00
Medical Convention			
Refund	0.00	-740.00	-740.00
Medical Convention - Other	0.00	89,880.00	89,880.00
Total Medical Convention	0.00	89,140.00	89,140.00
Membership dues			
Dues	211,035.00	0.00	211,035.00
Membership dues - Other	-146,920.00	0.00	-146,920.00
Total Membership Dues	64,115.00	0.00	64,115.00
Public Donation			
Sigetop	2,975.00	0.00	2,975.00
Public Donation - Other	1,385.00	35,595.00	36,960.00
Total Public Donation	4,340.00	35,595.00	39,935.00
TOTAL INCOME	**68,955.00**	**124,735.00**	**193,690.00**
EXPENSE			
Advertisement	1,000.00	0.00	1,000.00
Awards	594.00	2,914.19	3,508.19
Bank Charge	36.23	0.0	36.23
CME	0.00	700.00	700.00
Committee Dinner	187.57	516.90	704.47
Convention	0.00	71,621.75	71,621.75
Convention Golf/Tour	0.00	18,695.29	18,696.29
Executive& Committee Meeting	3,376.29	0.00	3,376.29
Fraternity Activities	1,749.00	0.00	1,749.00
Newspaper Publication/Delivery	23,538.38	0.00	23,538.38
Office Expenses and Supplies	1,268.09	377.98	1,646.07
Payroll			
Payroll Relate Tax FWT	4,784.58	0.00	4,784.58
SWT	1,138.54	0.00	1,138.54
Payroll - Other	21,087.60	0.00	21,087.60
Total Payroll	27,010.72	0.00	27,010.72
Photo	0.00	2,000.00	2,000.00
Photo and Printing	0.00	1,146.63	1,146.63
Postage & Shipping	381.27	1,719.84	2,101.11
Printing	0.00	5,358.69	5,358.69
Professional Fees	2,650.00	0.00	2,650.00
Revenue Sharing	2,820.00	0.00	2,820.00
Supplies	0.00	5,726.96	5,726.96
Telephone	1,968.04	0.00	1,968.04
Transportation	0.00	1,108.80	1,108.80
Travel Expense Reimbursements	3,575.11	9,197.68	12,772.79
Utillies	840.00	0.00	840.00
Website Creation	1,249.87	0.00	1,249.87
TOTAL EXPENSE	**72,244.57**	**121,084.71**	**193,329.28**
NET ORDINARY INCOME	-3,289.57	3,650.29	360.72
NET INCOME	**-3,289.57**	**3,660.29**	**360.72**

SNUCMAA Balance Sheet

As of June 30, 2007

ASSET		
Current Assets Checking/Savings		
NARA Bank 2006	32,266.38	
NARA Bank 2007	10,000.00	
Total Checking/Savings	42,266.38	
Fixed Assets		
Printer . Computer	980.00	
TOTAL ASSETS	**43,246.38**	
LIABILITIES & EQUITY		
Appropriate Fund		
Green Project	19,025.10	
Revenue Sharing	3,400.00	
Total Appropriate Fund		22,425.10
Exchange		
2. Scholarship Fund	37,087.00	
Total Exchange		37,087.00
Hamchoon Fund		
1. Collected		
7) 02-03	580.00	
8) 03-04	850.00	
Total 1. Collected	1,430.00	
Total Hamchoom Fund		1,430.00
Total Current Liabilities		60,942.10
Equity		
Opening Bat Equity		-0.10
Retained Earnings		-18,056.34
Net Income		360.72
Total Equity		-17,696.72
TOTAL LIABILITIES & EQUITY		**43,246.38**

그린 프로젝트 소식

모교 후배들의 동아리 모임인 'MEXIM'이 첫 돌을 맞았습니다. 김규한 지도교수님을 모시고 격주 토요일마다 회원들끼리 모임을 갖고, 일년에 네 번 대학병원 강당에서 모든 학생 및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탄탄한 모임으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와 콜롬비아대학병원에 하계 elective course 수련차 뉴욕에 머물고 있는 윤찬(현 MEXIM 회장), 안창호 및 나권중 재학생들과 오용호 장학위원장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박명근(60) 자전적 소설 '소년병의 일기' 출간

박명근(60) 동문이 자전적 참전일기'소년병의 일기'를 출간했다. 이 책의 편집노트를 소개한다.

한국전쟁의 폭풍 속으로 휘말려들어간
열여섯 살 소년병의 참전 일기

이 책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 불과 열여섯 살의 나이로 대한민국 육군에 자원입대해 최전방 등지에서 복무하며 동족상쟁의 뼈아픈 비극을 몸소 겪은 저자의 자전적 참전 일기다. 책 속에는 해방공간의 이념 대립 속에서 부모 형제의 고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 전쟁에 휘말려든 날부터 부상을 입고 상이군인으로 제대하기까지 꼼꼼히 써내려간 일기, 배움에 대한 불굴의 집념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꿋꿋이 자기 삶의 길을 개척해나간 이야기가 담겨 있다. 소년병이 남긴 한국전쟁 참전 일기라는, 흔치 않은 사료(史料)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삶의 세목들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의 삶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값진 책이다.

전쟁의 아픔, 소년의 성장 그리고 역사의 빛과 그늘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고향에도 봄은 왔건만'에서 저자는 일제하에서 보낸 유년 시절과 북한 공산정치의 경험을 회고한다. 해방 전후의 사회적 혼란상과 극심한 이념 대립 및 한국전쟁 발발까지의 급박한 역사적 사건들이 평범한 시골 어린이의 눈으로 생생히 그려진다. 저자가 가족들과 헤어져 고향을 등지고 홀로 남하해 동족상쟁의 전쟁터에 서는 일련의 과정은 개인의 삶이 자기의지와 상관없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얼마나 쉽게 휘둘릴 수 있는지를 통감하게 한다.

2부 '소년병의 일기'는 저자가 1950년, 만 열여섯 살의 나이로 대한민국 육군 6사단 수색대에 현지입대해 6사단 7연대를 거쳐 최일선에서 복무하다 총상을 입고 1952년 상이군인으로 제대할 때까지 전선에서 남긴 일기로서 이 책의 주가 되는 부분이다. 포연 가득한 전장의 분위기가 생생히 느껴질뿐더러 총을 들었을 뿐 아직 앳된 사춘기 소년이었던 저자가 남긴 삶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가족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가감없이 드러난다. 대부분의 일기에는 당시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솔직히 기록할 수 없었던 일들을 덧붙여 설명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3부 '의사로 산다는 것'은 제대 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삶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을 거의 독학으로 마치고 의대에 입학하기까지,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고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이 담담하게 소개된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청년 시절과 군사 독재의 압제에 신음하던 조국 땅을 뒤로 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모습에서는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역사의 질곡을 보게 된다.

박명근 동문은 1934년 황해도 능리(陵里)에서 태어났다. 황주고급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만 열여섯 살의 나이로 대한민국 육군 6사단에 자원입대하여 수색대, 7연대 등에서 복무했다. 1951년 총상을 당해 밀양 제7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52년 명예 제대했다. 그 뒤 미군부대 경비원으로 일하며 고등학교 과정을 자습, 1954년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해 육 년의 고학 끝에 1960년 수석으로 졸업했다. 1962년 미국으로 건너가 소아과와 소아심장학과 전문의 수련을 받고 텍사스 의과대학 소아심장과 주임교수와, 바레인 아라비안걸프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 및 과장을 역임했다. 200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에서 수여하는 제6회 함춘대상(학술연구 부문)을 수상했다. 2003년 텍사스 의과대학을 명예교수로 퇴직하고 지금은 드리스콜 소아병원에서 격주 파트타임으로 외래환자를 돌보고 있다.

정유석(64) 동문 8번째 저서 '아트홀릭' 출간

정유석(64)동문이 8번째 저서 '아트홀릭: 예술가들의 광기 어린 예술혼'을 출간했다.

291쪽의 단행본으로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 신문 등 한국 언론에도 출간 소식이 알려진 이 책은 톨스토이의 우울증, 고골리의 자기애, 조울증을 극복한 작곡가, 베를리오즈, 모네의 백내장 등 고전적 문학 음악 미술 작가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정신과 혹은 비정신과적 질병과 그 이상의 상태가 해당작가의 작품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일반인에 그다지 익숙지 않은 유명 작가들의 이면 세계을 보여준다.

지난 2005년 7번째 저서 '작가와 알코올 중독'을 발간했던 정동문이 이번에 '아트홀릭'을 통해 예술인들의 정신세계를 헤집고 들어간 이유는 자신의 전문분야 지식과 성장 배경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음악을 하시는 어머니와 그림을 그리시는 아버지 아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술인들에 관심이 많았던 그가 정신과 의사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예술인들의 정신 세계로 빠져든 결과이다.

고 박태진(62)군을 추모하면서

정 정 수(62)

태진아! 네가 가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구나. 네가 췌장염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너의 아들이 이상복 군 딸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알고 이번 3월 16일부터 열렸던 라스베가스 서울의대 총동창회때 너를 꼭 만나려고 라스베가스 너의 집으로 몇 번 전화하고 메시지도 남겨놓고 도착하고 나서 거기 사는 동문 이석우 군으로부터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 동문친목회에 여러달 결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사를 했는지 네가 마지막 하던 Locum Tenens 를 다시 시작했는지 궁금하던차 너의 서거 소식을 듣고 정말 애도의 정을 금치 못하겠구나.

너와 나는 우리 의과대학 학창시절에는 서로 학비조달에 너무 바빠 많은 친교를 나누지 못했지만 몇가지 내 인생운명을 결정하는 인연을 마련했구나. 의대 6년을 끝내는 1962년 너와 나는 서울의대 대학병원 인턴 레지덴트 킴스 플랜의 21명의 선택대상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는 너무나 힘든 의대생활 6년 다음에 다시 대학원 박사과정과 더불어 박봉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를 5~6년 더 계속해야 하는데 심히 고민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ECFMG(AMA 시험이라 불렀음) 시험에 우리 선배님중에 최우수생 한명만 임시성적으로 합격했다는 소문만 무성했고 그렇게 쉬운 시험이라는 것을 모를때였다. 내가 도서관에 내려갔을때 너는 나에게 지금 막 인턴을 취소하고 공군군의관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내 평생 한번도 시험에 실패한 적이 없는데 공군군의관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자신있는 말을 해주었다.

나도 바로 올라가서 주근원 선생님한테 인턴취소 소식을 드렸더니 대학병원 인턴이 장난이냐고 심한 꾸지람을 듣고 해군군의관 3년 단기를 지원했다.

너는 Mayo Clinic에서 재활의학을 전공하고 나는 Henry Ford 병원에서 소아과를 마치고 St. Thomas, US VI로 영주권 해결하러 내려갔다. 내가 waiver를 받고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는 그 먼 세인트 토마스 우리 집으로 날라와서 머물면서 너의 찬란한 이력서로 당시는 힘든 자리를 마련, 계약하고 올라갔다. 넉슨 행정부가 메디케어 시행과 월남전쟁에 심한 의사부족 해결방안으로 waiver 조건을 임시로 풀어준다는 소식을 내 친한 세인트 토마스 이민국 직원한테서 듣고 이사 내려올 필요 없다고 전했으나 기어이 내려온다고 우기더니 1~2개월 후에 그 법이 공포되자 위스컨신에 정착해서 좋은 개업을 시작했다.

그 후 매년 만나는 동문회에 너는 2남 1녀의 자녀와 명석하고 예쁜 부인을 데리고 승승장구하는 재활의 개업을 하고 우리는 골프도 치고 학생때 나누지 못한 우정을 마음껏 나누었다.

이북에 모든 가족을 남겨두고 너와 아버님만 월남한 너는 그후 이북에 있는 친척소식을 접하고 많은 이북왕래와 소포와 송금으로 마음고생을 하는 소식을 마음 아프게 들었다.

7~8년전 너의 의사 아들이 킬키스바레에 사는 카톨릭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 따님과 결혼식을 했을때 위스컨신 멀리 사는 너는 신부 근처에 사는 나와 강광원군과 이기범군을 Rehersal Dinner까지 이틀간 초대를 하고 우리는 Hazeltown에 개업하는 이기범 집에서 진을 치고 밤새껏 밀린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다. 너는 그때 목 양쪽에 Carotid Endarievectmy한 흉터를 달고온 내력을 담담히 이야기 하길래 우리 모두 인생살이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좀더 신경쓰자고 다짐했다. 작년 우리 뉴저지 터주대감 이상복군이 병환으로 큰 수술을 받았을때 너는 라스베가스에서 날라와서 우리 뉴욕 뉴저지 동기 친구들이 일본식당에 모여 반가운 상면을 했는데 그것이 너와 이 세상 마지막 만남이 될 줄 몰랐다.

태진아! 우리는 생물이란 숙명 때문에 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시간은 조금 길고 짧을뿐 누구나 꼭 가야할 길이다. 너는 2남 1녀 모두를 다 의사로 키워낸 훌륭한 업적을 남겨놓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고 갔다. 다만 아쉬운것은 너무 바쁜 생활만 하던 우리들이 좀더 시간적으로 여유로울 때 자주 만나 친교를 더 나누었으면 좋으련만!!

우리 모두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때까지 너의 명복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글을 마친다.

2008년도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동창회에서는 2008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동포 학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대 상: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각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동포 자녀로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모집인원: 5명 이하 ($2,000 내지 $4,000)

구비서류: 신청서(Website에서 download 받을 수 있음), 성적증명서, 자필소개서, 추천서 2통

응모기간: 2008년 9월 12일까지

발 표: 2008년 10월 15일까지 개별통보

접수 및 문의: SNUCMAA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Y 11358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 snucmaa@yahoo.com
www.snucmaa.org www.snucmaa.us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장학위원장 오 용 호

친우 김영일 선생을 애도하며

김 중 권(69, 대뉴욕)

친우 김영일 선생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지금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친구를 잃었습니다. 저와는 40년 넘게 오랜 친구인 고 김영일 선생은 1943년 전남 순천에서 출생해서 순천고등학교 수재였고 서울의대를 69년에 졸업했습니다. 의과대학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였던 김영일 선생은 도미 후 오하이오에 있다가 뉴욕 브롱스에 있는 Albert Einstein 의과대학에 마취과 레지던트로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뉴욕에 살면서 아주 가까운 친구로 지내왔지요. 그가 처음 뉴욕에 왔을 때는 뉴욕을 맘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몇 번 "뉴욕은 중권이나 살 곳이지 나는 안 맞아"하고 말했었는데 레지던트 트레이닝이 끝나고서는 마음이 아주 바뀌었지요.

시골에서 아주 좋은 offer가 있어도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하면서 한사코 뉴욕에서만 job을 찾았지요.

김영일 선생은 퀸스에 있는 Parkway General Hospital에서 오랫동안 마취과장으로 활동을 해왔고 집에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슬하에 두 아들과 막내딸을 둔 다정하고 훌륭한 아버지였을 뿐 아니라 어머님과 형제들도 세심하게 보살피는 진정한 family man 이었습니다.

우리 두 집은 애들이 어릴 적부터 스키트립을 10여 년 이상을 같이 다녔지요. 그집 큰아들 Chuck와 우리 둘째 딸 Susan이 한 조가 되고 우리 큰딸 Teena와 그집 둘째 아들 Jayson이 한 조가 되어 double diamond slope를 누볐고 우리 두 부부는 각각 막내딸을 데리고 스키를 즐겼지요. 볼룸 댄스도 두 집이 오랫동안 같이 배웠고 주말에 만나면 배운 스텝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일 선생은 글재주에도 재치가 남달랐고 우리 시계탑에 69별곡과 버뮤다 별곡을 남겼지요. 그는 또 골프와 카드 게임의 일종인 마이트를 몹시 즐겼습니다. 그가 쓴 69별곡에 보면 '죽장망해 단표자로 천리강산 유람가듯 골프클럽 둘러메고 마이애미 찾아드니" 하고는 "가는날이 장날이냐 날씨한번 기차구나 마음대로 짝을짓고 되는대로 조를짜서 두번씩 사흘치니 백팔번뇌 간데없다" 했고 또 "동지섣달 긴긴밤을 하릴없이 보낼소냐 물고기가 물을보듯 벌나비가 꽃을보듯 마이트 판벌리니 신선놀음 따로없다"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골프와 마이트를 즐겼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난 6월 1일 일요일 Sand Point에 있는 그의 골프클럽에서 우리 두 부부가 골프를 치고 저녁에 후러싱에 있는 아리수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뭐라도 예감이 있었는지 저한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50세에 별세하셨고 할아버지께서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제일 오래 살고 있다면서 지금은 덤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 덤의 인생이 겨우 일주일 만에 끝나고 말아 제가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6월 5일 목요일에 어머님을 뵈러 시카고에 갔다가 6월 7일 토요일에 여동생 부부와 골프를 쳤는데 오랜만에 장타를 날리면서 싱글 스코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분이 몹시 좋아서 저녁식사를 맛있게 마치고 여동생의 댄스 클라스에서 주최한 댄스파티에 가서 Chacha와 Lindy를 부인과 함께 즐기고 앉았다가 부인의 품 안에 쓰러져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십 년이라도 더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한이 되지만 이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본인이 좋아하는 골프와 댄스를 멋있게 보내고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슬픔은 차차 가셔가지만 친구를 잃은 허전함을 씻을 길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친구들

방 준 재(70, 대뉴욕)

최진훈이가 내게 전화 한 것은 지난 일요일 6월 8일이었다. 여니 때와 마찬가지로 병원 회진 전에 사무실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며 서류정리도 할 겸 한가하게 앉아 있을 무렵이었다.

"방형이요? 일요일 날 전화해서 미안하오"로 시작된 그의 전갈은 의외의 소식이었다. 김영일 형이 모친 방문차 시카고에 들렸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타계(他界)하셨다지 않은가!

조금 얼떨떨했다. 사실 전화를 최진훈에게서 받았을 때 나는 6월 14일에 있을 그의 오케스트라 공연에 불참할 수 밖에 없다는 나의 통지에 유감을 표시할 줄 알았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소식에 "허~ 참, 또 하나가 떠났구나" 생각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진훈이가 줄리아드에서 지휘공부를 하고 뉴욕 체임버 뮤직 오케스트라(N.Y. Chamber Music Orchestra)를 결성한 후 1년에 봄, 가을 맨해튼 뮤직 홀에서 두 차례 연주회를 해왔지만 지난 십 수년간 한두 번 참석한 것이 고작이었다. 항상 미안함이 있던 차에 "이번이 마지막 공연이 될지 모른다"는 그의 쪽지를 보았을 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무슨 일이 불거지고 피치 못할 사정에 나는 또 불참 이유를 들려 주었던 것이다.

나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텅 비어 버리는 듯하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듯한 공허감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공연은 꼭 보고 싶었고 마지막 공연의 장면을 나의 기억에 묻어 두고 싶었는데. 친구의 마지막 공연 불참에 대한 아쉬움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마지막 삶의 순간' 아니 끝나버린 삶의 옛 발자취를 나는 뒤돌아 보고 있었다.

'바람이 나서' (딴 이유는 들먹이고 싶지 않다) 본과 1학년 때 학교를 떠났다가 다음해 다시 복학했을 때 63 입학년도의 친구도 친구지만 64 입학년도의 급우들과도 나는 깊은 친분을 쌓아갈 수 없었다. 마음으로나 정서적으로 2년 반 정도 같이 보낸 63학번 친구들에 있었으나 복학후의 나는 64학번의 강의실에 앉아 있었던 세월 때문이다. 같이 있지 않으면 자연 멀어지는 인지상정(人之常情)때문이다.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미국에 왔다. 1973년이다. 뉴욕 뉴저지주에 사는 급우들이 모였다. 졸업연도를 지칭하는 '69, 70게' 라 했다. 우리의 미국생활이 같이 함께 보내는 세월이 있어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우리는 뻔질나게 만났다. 서로가 멀다 않고 찾고 또 만났다. 서량 집에서, 최진훈 집에서, 우리 집에서, 엄규동, 김창남, 김중권 형, 육순재 그리고 김영일 형 집에서 우리는 만났고 여기 있는 모든 69, 70 졸업반들의 집에서 만났다. Rye에 있는 이종성 집에서도 Scarsdale의 임안무 집에서도 우리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애들과 같이 만났다. 우리의 만남은 애들의 만남이었고 조영갑, 인정길, 정인용의 집에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기타와 키 보드 반주에 클라리넷 소리에 우리는 고함이라도 좋은 라이브 카라오케를 즐기며 이민 초창기의 세월을 보냈다. 수영장이 딸려있는 김중권 형이나 송기인 형 집에서는 Hampton의 부자들처럼 우리들의 어린애들과 마냥 즐겁게 보냈다. 세월이 또 간단없이 흘렀다.

우리들의 생활 패턴도 바뀌고 있었다. 골프에 점점 빠져들고 있던 나는 송기인 형과 김영일 형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베스페이지 골프코스의 블랙코스가 유명하다는 소문은 진작 듣고 있었지만 막상 이 코스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김영일 형 때문이었다. 무더운 어느 해 여름이었다. 예약대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들만 티 박스에 섰다. 한산해서 좋아했다. 앞에서 질척거리는 골퍼들을 보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짜증나고 김새는지라 한산하기만 했던 골프장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카트를 타지 못하는 그 곳인지라 풀 카트를 끌고 한 홀 두 홀 지나자 여름의 찌는 태양과 지열은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그때야 그런 날에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물이나 벌컥벌컥 마시며 죽기살기 식으로 18홀을 끝냈다. 블랙코스와의 만남은 항상 김영일 형을 생각하게 한다.

그후 같이 찾아간 포코노의 산중 코스도 그렇고, 영일 형이 멤버로 있던 올드 웨스트버리 코스나 항상 같이 쳤던 모교 의과대학 골프대회를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또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다. 걸어가는 길들이 달라졌다. 김영일 형뿐만이 아니라 타동창들과의 만남이 뜸해졌다. 야생마가 되어 동창이라는 울타리에서 뛰쳐나와 버린 나의 들판 생활 때문이었다.

이민사회라는 들판은 황량했다. 그리고 삭막했다. 정(情)이 배제되고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헐벗은 그런 들판이었다. 들판을 헤매며 하는 짓이라고는 구걸질이었다. 돈을 달라 했고 시간도 좀 달라했다. 시간과 돈의 구걸질에 선뜩 적선(積善)했던 몇몇 되지 않은 동창이 영일 형이었다. 참 고마웠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아, 그러던 김영일 형이 홀연 떠나 버린 것이다.

일하던 옷차림 그대로 여름 반소매를 입고 베이사이드의 장의사로 가던 길은 교통체증이 무척 심했다. 지난 6월13일, 금요일 주말이 시작되는 러시아워였기 때문이다. 그 길은 항상 그랬다. 주소대로 찾아 간 그곳에는 벌써 장례미사가 시작되고 나는 맨 끝자리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영일 형의 지난 삶을 듣고 있었다. 내가 모르고 있던 삶의 부분도 많았다. 옛날을 잘 묻지 않는 나의 버릇 때문이다. 요만할 때 만났던 영일 형의 자녀들, 특히 둘째 아들인 제이(Jay)와 잠깐 나눈 대화는 내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용케도 그는 나를 첫눈에 알아보고 나의 이름이나 내 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자주 만나야겠다고 말해 주고 있었다.

갑작스레 맞은 아버님의 죽음을 제이는 그렇게라도 잃어버림의 아픔을 뛰어넘고 싶었는지? 그러나 나는 제이가 잃어버림의 슬픔을 딛고 내 세 아이들과 우리 69, 70계의 또 많은 아이들과 함께 서로가 다시 만나 같이 걸어가며 삶을, 그 즐거움을, 그 아픔을 같이 나눠 갖기를 바라고 있었다.

영일 형이 가만히 누워있는 앞에서 무릎 꿇고 성호(聖號)를 그으며 기도하고 싶었다. 대신 영일 형 앞에 서계시던 미세스 김을 어깨를 감싸며 눈물로 글썽거리는 세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그 곳을 떠났다. 담배를 꺼냈다. 연기를 공중에 뿜으며 "삶이란 게 -" 하며 중얼거렸다. 영일 형처럼 그렇게 떠나버린 친구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호탕하고 거침없던 이성우, 타계 1주일 전에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불렀던 이규현 형. 나는 형의 죽음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가만히 누워있던 형을 쳐다보며 성호를 그은 후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댔다.

은퇴하자마자 은퇴가 주는 삶의 여유랄까 그런 것을 만끽하기도 전에 병마에 시달리다 가버린 이종성, 고물차가 주저 앉아버려 장의사에도 못 가본 나는 미세스 리에게 겨우 기도문이 적혀있는 위안 카드를 보내는 데서 그쳤다. 그렇게 친구들은 하나하나 떠나 버렸지만 기억 속에 나랑 같이 살아갈 것이다.

식품점에 들렸다. 시장 보는 아낙처럼 이것 저것 산후 그곳에 있는 간이 식당에서 장터국수 한 그릇을 다 먹어 치웠다. "Life has to go on, and it will."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영일 형이 남기고 간 그 공간을 나는 먹는 것으로 채우고 있었다.

김영일 형의 명복을 빈다. 아마도 65년의 삶이었을 것이다. 뒤에 남기고 떠난 가족들을 생각해 본다. 또한 언젠가는 우리도 같이 그 길을 가야 하는 동행이 아닌가도 생각하며.

Viewing

-김영일 형의 영전에

서 량(69, 대뉴욕)

부동자세에서 금방 벌떡 일어나 형이
반 쌍꺼풀 눈을 뜨고 좌우를 두리번거릴 것 같은데

멋진 상의를 걸치고 골프를 친 날
저녁에 적포도주를 마신 상기한 얼굴로
넓은 무도회장의 보름달 모양으로 생긴
테이블에 여럿 앉아 짭짤한 농담도 했을 법한 형이

가벼운 현기증이 왔을 것이다
우리들 누구라도 예쁜 삶 한구석에 늘 숨어있는 현기증이

저 신선한 산소와 질소와 수소의 원자방정식이
희색 양복에 비단 넥타이를 매고
시원한 시공을 훨훨 날아가는 동안
우리들 누구라도 생존의 굳은살이 튼실하게 박히는
그런 부동자세에서 일순 몸을 뒤척이는 형을 대면할 때

미주동문 남미여행을 다녀와서

황 규 정(65, 미시간)

서울의대 미주동문 남미여행을 지난 6월 12일 뉴욕 JFK를 떠나서 뉴욕 아세아 여행사의 도움으로 10박 11일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숫자였으나 58년 졸업생부터 71년도까지 그리고 동부, 중서부, 남부, 카나다를 망라한 동문들이 모인 여행이었다.

6년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우리 의과대학 특정상 의예과를 거쳐 의과대학이 마치 고등학교의 연장인것같은 우리 동문들이라 만나자마자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 또는 명성을 익히 듣고 알아볼수있는 분 또는 생면부지의 사람이라도 4단계만 거치면 알수있다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한단계만 지나도 벌써 금방 알수있는 우리 동문들은 이렇게 가깝고 끈끈한 관계인 것이다.

의학계의 엘리트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금은 은퇴하셨거나 은퇴할 나이에 계신 동문들의 내외분들이 여유있고 행복하게 여행을 즐기시는것을 보니 우리 내외도 덩달아 가슴이 뿌듯함을 느꼈다.

11일간 같이 지나는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까워졌고 여러분들의 정담, 덕담, 농담을 통해 그분들의 오랜 경륜과 연륜에서 나오는 값비싼 시간들을 즐긴셈이다. 아세아 정사장님이 직접 같이 오셔서 현지 가이드들을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배려와 well qualfied된 현지 가이드, 흥미있고 아름다운 경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문 전체가 형이야 아우야 하면서 똘똘뭉쳐 삼위일체가된 여행이었다.

매년 한번씩 만나는 컨벤숀도 중요하지만 점점 고령화되는 우리동창회의 활력소가 되는 면에서도 이런 단체여행을 자주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싶다. 모든분들이 건강하게 여행을 마칠수 있어 기쁘고 이번 여행에 동참한 동문명단(존칭 생략)과 여행 highlight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여행기를 사진과 함께 보실려면 우리 동창 webpage(snucmaa.us)를 열어 보세요.

참석자 명단: 김시한(58), 민병덕(59), 김병구(59), 진창곤(61), 장인호(63), 김태형(63), 황규정(65), 김유식(71)

1. 마나우스와 아마존강

마나우스는 브라질 북서쪽에 위치 아마존 지류 니그로강 좌안에 위치한 아마존강을 형성하는 북부 9개주 중 유일하게 개발된 아마조니아주의 수도이며 브라질의 10대도시의 하나이며 아마존의 관문이 되는 도시이다.

첫날 긴 비행기 여행후 도착했던 곳으로 넉살좋은 한식집, '아라' 주인장의 환영과 칼칼한 김치찌게 등으로 고추가루 마늘이 몸속에 배어들어 가서인지 여독이 풀린 가뿐한 마음으로 아마존강을 explore 할수 있었다.

아마존강은 그말 뜻이 '웅장하고 거대'하다는것 같이 페루 안데스 산에서 발원 브라질 북부를 관통하여 대서양으로 빠져가는 700km가 넘는 길이로 유역면적, 유량이 세계 제일이며 지구 전체 산소의 25%가 이곳에서 나오며 25%의 물이 대서양으로 빠져 바닷물을 정화하는 지구의 젖줄과 같은 강이다. 가는날(6/13)이 장날이라고 일년중 강수위가 제일 높은 날이라서 강물이 넘실거리고 쾌속정을 타고 아마존강을 달리며 언젠가 텔리비죤에서 보았던 황토색 검정색으로 갈라 흐르는 강물들, 원주민들의 수상생활, 1300개나 된다는 섬들이 가끔씩 보이고 늦은 오후의 양광을 받으며 시원하게 불어오는 훈풍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잔뜩 부풀게 만들고 쾌적하기까지 했다.

배를 내려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라는 미나우스 오페라 하우스, 커피 축구와 더불어 브라질의 3대 상징인 삼바축제 하는곳 등등을 보고 호텔에 체크인하니 이곳에서 자주 있다는 소나기가 지나가 비를 맞지않고 마친 안도감과 AC가 잘된 특급 호텔에서의 아세아 정사장님이 내는 레드와인을 을 곁들여 저녁식사후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피로는 했지만 즐거웠던 여행 첫날이었다.

2. 아마존 정글 탐험

사실 이번 여행을 결정하게된 이유가 이과수 폭포와 더불어 이 아마존 정글 탐험인 것이다. 관광객으로서 아마존 정글맛을 보기위해서는 마나우스에서 뱃길로 2시간여 떨어져있는 정글호텔에 가야된다 한다. 이 호텔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이 몰려온다 한다.

도착후 관광객으로 붐빌 시간을 피해 점심을 일찍하고 오후 제일 더운 때를 피하기위해 잠시 쉰후 모터보트를 타고 정글 탐험에 나섰다.

20명이 타는 보트 뒤에서 운전을 하는데도 정글의 나무가지들을 용케 피해가면서 정글 깊숙히 들어갔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정글속에 숨어있는 온갖 수종들, 짐승, 곤충들이 마치 대자연의 숨소리가 들리는듯 어느 교향악 못지않게 우리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다.

가면서 수많은 나무에 붙어있는 흰개미집, 하루에 20시간을 잔다는 나무늘보도 운전사가 잡아서 가까이에서 보고 사진도 찍었다.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도 방문해서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아낙이 즉석 '마'가루로 만든 팬케익도 시식하고 열대에서만 볼수있는 아사히나무, Brazilian nut tree, 유루부나무 등도 보았다. 호텔에 돌아와 석식후 야행성 동물인 악어사냥을 위해 8시쯤 보트를 타고 나갔다. 악어있는 곳을 알자마자 동행한 여자 사냥군이 날세게 다이빙해서 생각보다는 작은 3년생쯤 된다는 70cm 가량의 악어의 목덜미를 잡아올려 모든 사람이 함성을 질렀다.

잡힌 악어를 groggy 상태로 만든 틈을 타서 생각보다는 보드러운 피부를 가진 악어 목을 잡고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었다. 풀어줄때 날세게 물속으로 들어가는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섬짓해진다. 다음날은 피라니아 낚시하는 날이다. 정글속에 들어가서 4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행중 한분이 낚아 체면은 세운셈이었다. 사람살도 뜯어먹는다는 이 물고기는 맛이 일품이라 한다.

정글 호텔에 올때보다 갈때는 쾌속정을 이용 45분만에 마나우스에 공항에 도착 다음 예정지인 리오도 자네이로로 향했다. 아마존 정글 탐험은 이번 여행의 highlight의 하나이며 우리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것 같다.

3. 리오데 자네이로

리오데 자네이로는 부라질의 쌍파울로 다음가는 도시로서 나폴리, 시드니와 더불어 세계 3대 미항으로서 바다와 바위산이 잘 어울려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도시이다.

인구 6백만에 서울 2배 정도의 크기로 1763~1960년까지 수도였으며 각 기업의 본사가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1502년 폴트갈 왕이 후추상권을 위해 인도로 보낸 일행이 방향을 잘못들어 이곳에 와서(1월 1일) 灣이 아닌 강으로 착각하여 '일월의 강(Rio de Janeiro) 으로 명명한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한다.

리오에는 볼거리가 많았는데 그중에 코르코바드 언덕에 세워진 '예수상'이다. 1926년 시작 5년후에 독립 100주년을 기념 국민성금 40만불로 시작하여 완공시킨것으로 높이 30m이고 팔길이가 28m 무게 1145톤 이나 되는 콘트리트 위에 작은 돌조각을 모자익형으로 붙혀 만든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뽑혔다. 기차로 25분 올라가서 내려다 보이는 리오시의 아름다운 경관은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날씨가 썩 좋지 못했어도 사진들을 찍고 내려왔다.

다음은 빵산(Pao de acucar)으로 산의 모양이 빵 같이 생겼다하여 이름지은 것으로 1909년 리오시장이 케이블카 공사를 시작 3년만에 완공했고 007영화 'Moon Raker' 촬영지로도 유명한곳이다. 예수상 있는 언덕에서 본것은 리오시 안에서 바깥 경관을 본것이고 오늘은 반대로 리오시 바깥에서 안의 경치를 본셈이다. 이리 저리 보나 역시 리오시는 세계 3대 미항에 걸맞는 아름다움을 지니었다.

그밖에 H. Stern에 있는 원석 박물관, 추기경이 집무한다는 중앙성당 등 수많은 볼거리가 있엇으며 삼바쇼 가기전 바베큐한 소고기 각부위를 계속 잘라주는 브라질 전통식 Churrascary로 포식했으며 육고기를 자주 먹지 않는 사람으로 이곳에 와서 일주일도 안되는데 미국에서 몇개월 먹은 양의 육식을 한셈이다. 삼바쇼는 '5백년 브라질 역사'를 주제로한 variety show로서 람바다, 보사노바, 쌈바로 이어지는 마치 쌈바 페스티발을 보는것 같은 90분간의 쇼이었다. 끝나기전 우리 한국도 많이온 관광객의 나라의 하나로 급조된 합창단으로 아리랑을 부르고 그것도 미진했던지 마치 붉은 악마나 되는양 박자에 마추어 대.한.민.국을 크게 외치었다. 이렇게 외지에 나오면 다들 애국자(?)가 되는것인가? 아름다운 리오시여! Adios!

4. 이과수 폭포

이과수 폭포는 브라질 서남쪽에 위치한 브라질 아르젠티나 공동 국립공원에 있으며 뿌리찌바에서 시작 이곳에 와서 폭포를 이루는 이과수강에 있다.

나이아가라 폭포, 빅토라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의 하나로 브라질, 아르젠티나, 파라과이 삼국 국경에 놓여있다. 전장 4.5km 평균낙차 70m인 낸시 레건이 와서보고 'Poor Niagara falls!'라 했다는 이 폭포는 그 웅장함과 섬세한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명실공히 세계 최대 폭포이다.

무엇보다도 인상을 깊게한 것은 이과수 국립공원 정글에서 뿜어나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삼림과 계곡을 한시간여 걸으면서 이 폭포를 감상할수 있다는 것이다. 첫날은 브라질쪽에서 이과수 폭포 전장을 한눈에 볼수 있었고 다음날은 아르젠티나쪽으로 건너가 낙차 100m를 넘는 웅장함을 자랑하고 이 엄청난 폭포에 매료되어 가끔씩 투신자살을 한다는 '악마의 목구멍'을 대자연의 외경스러움을 느껴가며 물보라를 맞아가며 돌아보았다.

이곳에서의 하이라이트로 모터보트를 타고 영화 '미션'을 촬영한 아름다운 폭포를 가깝게 가서 마치 장대비를 맞으며 롤러코스트를 탄것 같은 'Mauco Safari'이였다. 끝나고 나서 안도의 숨을 쉬며 평균연령 70 안팍의 우리 일행의 노익장을 과시하며 만족스런 함성을 지르며 해낸 쾌거였다.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폭포를 얼마동안 우리들의 뇌리에서 지울수 없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의 하나이며 누구나 일생에 한번은 가봐야 할곳으로 생각한다.

5. 이타이푸 수력발전소

브라질리아 밑에 있는 찌예떼에서 시작하는 Parana강중 지하에 견고한 암반으로 되어있는 이과수 폭포 북쪽 14km 떨어진곳을 좇아 1975년 시작 1971년에 완공한 1406m의 길이와 높이 185m, 저수지 면적 1350평방km, 저수량 2010억 입방미터로 한시간에 12메가 와트를 넘는 발전량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이다. 브라질의 전기 25%를 담당한다 한다. 많은 학자들이 성공치 못한다고 하던 예상을 뒤엎은 이유중의 하나는 정글에서 내려오는 비중이 높은 진록색 물이 300톤의 터빈을 백퍼센트 가동시킬수 있는 힘이여서라 한다. 저수지도 그 근처에 수산대학을 세워 190여종의 어종을 길러 연구케 해서 세계 제2 식량대란에 대비한다 한다.

6. 부에노스 아이레스

부에노스 아이레스 관광은 남쪽으로 내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에 일행중에 뱀띠가 끼어서인지 비까지 내려 2일간의 관광을 허겁지겁 마친 기분이다.

아르젠티나는 남한의 12.6배의 넓은 지역을 가진 인구는 4천4백만이 되는 나라이다. 유럽 귀족출신들이 대거 이민와서 백인이 97%를 차지하는 천주교가 주를 이루는 남미 다른 나라들을 경시하는 백인 우월주의 나라이기도 하다. 1516년 스페인의 후안 디아스 데 솔라스의 탐험으로 발견 나폴레온이 스페인을 점령하는 틈을 타서 1810년 독립되었고 수도 BA에서 260km나 가야 작은 산을 볼수 있는 넓은 평야를 가져 농축업이 주업이다.

부에노스이레스는 수도이며 '남미의 파리'라는 말과 같이 〈다음면에 계속〉

紙上法醫

아스베토스 (석면) 흡입

노 용 면(55, 대뉴욕)

바스타씨 (Mr. Basta)는 뉴욕주 북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위치한 탄광에서 1970년부터 1982년까지 일했었다. 노동자 시절에서부터 감독이 될 시절까지 꾸준히 일했었다. 석면이 들어있는 탄광의 일부분이 크게 무너지는 참사도 체험한 바 있었다. 은퇴 후 건강이 좋지 않아 1999년에 폐장의 CT scan과 fibroptic bronchoscopy를 했더니 좌측 늑막강에 액체가 고여 있어 좌측 폐 하부가 압축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는 은퇴한지 18년만에인 2000년 9월에 사망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1세였다. 가족이 병원에서 극한된 부검을 하여 폐조직을 검사해 달라고 위촉했다. 부검을 실시한 병리의사가 좌측 늑막이 매우 두꺼워져 있었으며 늑막 여기저기에 plaque 들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았다. Plaque 형성은 횡격막 우측에서도 보았다. 우측 늑막강에는 액체가 고여 있었다. 현미경으로 조직검사를 하고 mesothelioma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는 그 진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직표본을 자기가 과거에 수련받았던 뉴욕시에 있는 병원의 병리의사에게 보냈다. 그 병리의사가 mesothelioma를 확인해 주었다.

세 보험회사 (바스타씨의 생명보험회사와 탄광회사가 가입했던 두 보험회사)가 다른 병리의사들을 채용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이들 세 병리의사가 모두 주장하기를 그 조직에서 보는 종양은 mesothelioma가 아니고 adenocarcinoma라고 했다.

뉴욕주 Workers' Compensation Board가 양측에 있는 다섯 병리의사들을 공청회에서 증언케 했고 기타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게끔 했는데, 결국 결론을 지을 수가 없었다. 바스타씨가 사망한지 7년이 넘는 2008년에 Workers' Compensation Board가 나의 의견을 요청해 왔다. 나는 이 조직체의 Impartial Specialist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다.

내가 받은 엄청난 양의 기록들을 조사한 후 조직표본들을 검사했는데 그 소견은 극히 간단했다. Mesothelioma와 adenocarcinoma를 함께 볼 수 있었다. 늑막과 그 주변에 있는 종양들은 정확히 mesothelioma인데 폐 내부조직에 있는 종양들은 adenocarconoma였다. 내가 그들에게 이러한 소견을 알리면서 아스베스토스 흡입은 mesothelioma뿐만 아니라 폐조직과 딴 장기에도 여러 가지 종양을 발생하게 하며, 폐인 경우에는 adenocarcinoma의 발생율이 높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어찌하여 5명의 병리의사들이 Hematoxylin-Eosin stain은 물론 immunohistochemical stains까지 한 슬라이드들을 보고 이렇게 틀린 견해들을 표시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이 조직표본의 일부분만 받고 그런 진단들을 내렸을런지는 몰라도, 틀린 진단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집해 온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 자기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의 이유를 곧 찾아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몇 년을 두고 무조건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바스타씨의 죽음은 그가 근무도중 아스베스토스에 노출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입증했다. 즉 그의 직장근무와 죽음 사이에 긍정적인 인과관계(positive correlationship)가 있다는 결론이다. 그가 사망한지 7년만이고 탄광에서 은퇴한지 26년만에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내가 보고서를 보낸지 약 두 주일이 지난 후 통지가 왔는데, 보험회사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내가 재판에서 증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그 재판은 trial by telephone confernce로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을 시작하니, 변호사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별로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5분내에 모든 것이 끝났다.

Reference:
Yong-Myun Rho : Industral Diseases and Injuries. Medicolegal Implication.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78 : 2239-2241, 1978

Poopie Chicken

김 혜 자(황철 66 동문부인)

삼 남매중에 둘째만 결혼해서 손주가 둘이 있다.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그 인기는 유치할 정도다. 우리집에 손주들이 온다고 하면 게들의 고모와 삼촌은 만사를 제쳐놓고 꼬마들과 놀려 다 모인다. 아들 내외는 든든한 베비씨터들이 있으니까 둘이 나가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며 좋아라 한다.

며느리가 직장일로 일주일간 출장을 가야 된다고 했더니 이번에도 딸 아이와 막내 아들이 저희들이 직장 휴가내고 가서 봐 주겠다고 한다. 게네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것 똥 기저귀 갈아주는 일이다. 예쁘다고 데리고 놀다가도 기저귀 갈아야 할때는 날 불러댄다. 난 "너희도 자식을 나아봐라. 더러운가" 하지만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고 법석이다.

아이들의 아빠인 큰아들은 외과 레지던트라 당직에 늘 바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한거다. 우리 내외가 음식을 해들고 도와주러 버팔로로 달려갔다. 오늘 저녁은 닭을 오븐에 구워 먹기로 했다며 언 닭을 작은 버켓에 넣어 냉수에 담가놓고 녹이고 있었다. 성질급한 남편이 이 닭이 언제 녹이느냐고 닭에 씌워있던 플라스틱을 벗기고 닭을 이리저리 씻으며 녹였다. 큰 닭이라 오븐에서 거의 세 시간이나 구웠더니 뱃속에 들어있던 버든이 올라와서 다 익었음을 알려줬다.

그때 아들 아이가 퇴근해서 집엘 돌아오더니 씽크에 아직도 있는 버켓을 보며 "아니 이게 왜 씽크에 있어?" 하고 묻는다.

"거기다 닭 녹였지" 했더니 인상이 일그러진다. "Oh No, 이건 애기 똥 묻은 옷 담궈 놓는거야. 그 닭 버려야되, 먹으면 안돼" 한다.

그 닭을 맛있게 구우려고 레몬즙도 뿌리고 갖은 양념을 해서 하루종일 씨름해 구워놓은걸 버리라니. 남편은 왜 버리냐고 정신나간 소리하고 있다고, 자기가 계속 물을 갈아주며 닭을 녹였고 오븐에서 세시간씩 구워서 다 살균이 됐으니 먹어도 상관없다고 한다.

아들 아이가 전 안 먹겠고 저희 아이들도 먹이지 말랜다. 그래서 우리 내외랑 딸, 막내 아들만 맛있게 구워졌다며 닭고기를 먹는데 큰 아들애는 제발 버리자고 사정 사정한다. 이튿날은 남은 닭으로 닭고기 샐러드를 만들어 우리 넷만 먹었다.

그 뒤로는 그 사건을 "Poopie Chicken"이라고 부르며 웃곤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딸 아이의 약혼자가 "내가 거기 있었으면 너랑 같이 나도 그 닭고기 먹었을꺼야"해서 우리한테 또 점수를 땄다.

개똥철학

나의 마지막 기도

김 택 수(63, 라스베가스)

나 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말할것도 없지만 나 보다 아주 젊은 분들의 訃音도 자주 대하게 되는것이 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만은 아닐것 같다

어느날 어느時에 예약해 놓고 오는 불청객이 아닐진데 내 어찌 나 몰라라고 있을소냐.

언제 어디서 들어 닥칠 지 모르는 불청객을 반갑게 맞이한다는것은 道가튼 道士가 아닌 바에야 아예 불가능한 일일것이나 경악(驚愕)으로 맞이하지는 않아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든다. 그럴려면 보통때 부터 연습을 열심히 해야만 될 줄 믿는다.

이를 일러 "죽는 연습" 이라 해보기도한다

몇살을 살고 가든 아쉽기는 마찬가지 겠지만 더 살고 가지 못한 햇수를 아쉬워하면 끝이 없겠으나 몇년이 되든 살고 간 햇 수를 감사할 줄 안다면 그 햇수가 몇년이 되든 驚愕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된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을 적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것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한다. 이런 기도를 계속하면 이세상 하직하는 순간에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며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 한 세상을 가장 뜻 있게 살고 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극락이라 이르면 어떠리
천당이라 이르면 어떠리
하늘나라라 이르면 또한 어떠리
그곳은 죽어야만 갈 수 있다는 곳
우리 모두 살아서
극락에서 살아보세
천당에서 살아보세
하늘나라에서 살아보세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시각에도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마지막 기도가될 때까지 난 계속할 것이다.

〈전면에서 계속〉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 마치 바둑판같이 잘 정리되었고 관광은 오월의 광장에 있는 핑크색 대통령궁, 독립영웅 San Martin 장군이 묻혀있고 대통령 취임미사를 한다는 대성당, 이 나라의 영웅중의 하나인 Evita가 묻혀있는 국가 문화재의 하나인 레꼴레따 묘지.

시 건립 400주년 기념으로 건립한 Obelisco, 세계에서 가장 넓은(20차선) 도로인 '90 de Julio', 파리 몽마르트와 흡사한 까미니또 거리, 탱고의 시작과 축구영웅 마라도나가 속했던 팀이 있는 보까거리 등을 보았으며 본고장 탱고를 감상할수 있는 탱고쇼를 가기전 43년이나되는 이민사로 1만9천명의 교포가 있는(85%가 봉제업) 60여개나 있다는 한국음식점의 하나에서 걸직한 한식들을 최연장이신 선배님이 쏘시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즐기었다.

탱고쇼는 탱고의 아버지라는 가수 Carlos Gardel과 같은 이름의 극장 발코니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감상했고 탱고의 문외한인 이사람에게 옆에 있는 닥터 김이 이곳 탱고는 우리가 보아오던것과 달리 다리를 들어 묘기를 보여주는 탱고법이라 귀띔을 해준다.

다음날 비행장에 가기전 오전에 가우쵸목장에 들려 말도 타보고 이들이 자랑하는 '아사도'요리(소갈비를 2-3시간 천천히 구운)도 시식했다.

이번 여행에서 아르젠티나는 BA만 잠간 들렸었는데 그밖에 너무 많은 관광지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언젠가는 이곳을 한번 더 오고 싶은 충동에 잠긴다.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내용: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농담골목'에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원고는 사양하오나 2세들의 영문원고는 환영합니다.

사양하는 원고: (1) 종교적인 내용
(2)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
* 가급적이 1면이상 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d 혹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Floppy Disc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인도 체험기

이 원 택(71, 남가주)

피사의 탑은 기술부족탓 이지만 델리의 사탑은지진을 대비한 철저한 계산하에 세워졌다.

1. 화장실 문화

대한민국 국력의 신장으로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다녀왔다. 나도 남에 뒤질세라 연말 휴가를 이용해서 8박9일 동안 소위 인도 관광의 황금삼각주라 하는 델리 - 아그라 - 바라나쉬를 둘러보았다. 최신식 고급 호텔에만 투숙한데다가 아주 한국말을 잘하는 현지인 가이드를 동행했으나 인도여행은 관광이라기보다는 탐험쪽에 더 가까웠다.

사람 사는 어디나 쓰레기가 없는 곳이 있을까 마는 아직까지 인도와 같은 쓰레기의 천국을 본적이 없다. 물론 인도사람들도 청소도 하고 또 쓰레기를 한군데로 모아놓곤 한다. 그러나 인도정부는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송수단과 매립 또는 소각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도시를 포함해서 화장실이 있는 집이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외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항상 그들의 배설물로 온갖 악취가 풍기는가 하면 소를 비롯한 돼지, 개, 염소, 낙타 등등 온갖 동물의 똥 때문에 이것저것 피하다 보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고 신발을 신어도 양말없는 샌들 정도이니 거의 신으나 마나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을 힌두교나 이슬람교 또 불교 교도를 막론하고 사원에 들어갈 때는 모두들 신발을 벗는다. 하루에도 다섯번씩 예배를 본다면 나라도 거추장스러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인도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소나 돼지도 맨발로 다니는데 하물며 그보다 못한 인간들이 신을 신고 다닌다는 것은 과연 개발의 편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이 탓인지 시차 탓인지 새벽잠을 설치고 먼동이 틀 때 쯤 밖으로 나가 산보라도 할라치면 사람들이 조그만 물병을 하나씩 들고 골목이나 행길 옆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다. 인도에서는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도 용변 후에 휴지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왼손으로 물을 사용해서 뒷일을 마무리 짓기 때문에 거의 치질이 없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 80% 이상이 채식주의자인 것이 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지만 말이다.

나는 미국에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인도의사들이 식물성 햄버거를 먹는 것을 보고 '참 별놈들 다 있네'라고 반신반의 했는데 인도에 와보니 육류로는 닭이나 양고기가 고작이고 진짜 힌두교나 불교도들은 계란이나 생선도 먹지 않는단다. 그래서 인도 북부에서는 농장이 온통 유채화로 덮혀 있다. 처음에는 인도사람들이 꽃을 좋아해서 온 벌판에다 샛노란 유채화를 심어 놓은줄 알았는데, 이 유채화야 말로 잎은 나물로 무쳐먹고, 줄기는 카레, 뿌리에서는 향료, 씨에서는 겨자, 꽃에서는 벌꿀을 만드는 다목적용 식물로 인도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되고 있다고 한다.

어떤이는 인도의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짜 인도의 색깔은 노란색이어야 한다. 유채화는 물론이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의 똥 오줌 색깔이 모두 노란색이기 때문이다. 도시나 시골을 막론하고 길가에는, 지천에 깔린 소똥을 모아 지푸라기와 섞어서 만든 배구공만한 '쇠똥호떡'을 햇볕에 말리고 있는데 대낮에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여간 먹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는 인도인들의 주 연료로 쓰인다지만 깨끗하거나 더럽다는 개념은 위생적인 것이지 미나 순결의 관념이 아니다. 인도의 국화 연꽃은 원래 동물의 배설로 오염된 '더러운' 물에서 자라야 그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이다.

2. 거리문화

인도에 첫 발을 디뎠을때 현지 가이드는 '인도관광은 사람 관광'이라고 했다. 인도의 인구는 대략 13억 정도이며, 약 20년 후면 아마도 중국을 따라 잡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에는 산아제한이 있지만 인도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도를 다니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모두들 거리로 나와서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은 잠만 자는 곳이고 길거리나 저자 바닥을 그들의 생활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나 군데군데 모여서 chai를 마시면서 한담을 하는 사람들도 먼지와 소음과 악취로 뒤범벅이 된 길가에 나와서 즐기고 있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들은 외로움 보다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것 같다. 인도는 아직도 대 가족제도 인데도 말이다.

나는 미국 운전경력이 30년 이상이나 한국에 가서는 자신이 없다. 어떤이는 서울에서 20년이상 택시기사를 했지만 인도에서는 운전할 엄두도 못낸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고속도로에서도 어떤곳은 차가 마주 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리에는 신호등이 없다. 번잡한 거리에 있는 교차로의 가운데 있는 초소에는 아예 교통순경이 없다. 교통순경이 있어봐야 전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더 혼잡만 일으킬 것이 뻔하다. 즉 인도의 교통문화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대신 교통경찰은 한가한 교외나 고속도로에 나아가 주로 관광차량을 대상으로 시시콜콜한 트집을 잡아 쉽게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또 주 경계선을 지날때면 통행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운전수들은 그냥 도로상에서 차를 세워놓고 매표소까지 걸어가서 서로 돈을 먼저 내려고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차단기를 비롯한 모든 것이 수동식이고 일차선에서 앞뒤가 다 막혔으니 매표원이 표를 다 팔 때 까지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이다. 그 머리좋은 인도인들이 임금도 싼 판에 최소 200미터 간격이라도 두고 가는 차 오는 차 따로따로 돈을 받으면 될텐데 아마도 교통소통 보다는 돈 받는 일이 더 급한 모양이다.

짧은 시간에 여러곳을 보려면 차량이동이 불가피 한데 인도의 국도들은 대개 가운데로 차 한 대 지나갈 정도만 포장되어 있다. 즉 포장도로를 양쪽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다가 앞차가 마주오면 왼쪽으로 비켜주거나 바른쪽으로 추월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인도 차들은 대형이나 소형이나 쿠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뒷좌석에 타고 있으면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요동을 친다.

첫 날 일행중에 나이드신 분들은 앞자리로 모시고 젊은 사람들은 뒷자리를 차지했는데, 약 2시간쯤 후에 휴게소에 들려나온 어르신네들이 슬며시 뒤편으로 오면서 어린애들 하고 자리를 바꾸는 것이었다. 앞자리에 앉아보니 편안하기는 하나 차마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자리로 간 초등학생들이 신이나서 연방 환호성을 질러대는 것이 아닌가.

여행을 다니면서 운전 잘하기로는 홍콩과 이태리 운전사들인줄 알았는데 인도에 와보니 그들은 저리 가라인 것이다. 우리 운전사는 50대로 보이는 38세의 인도인 이었는데, 양쪽 공용으로 쓰는 외길을 5~60마일로 달리면서 상대방 차량(대형 트럭을 포함해서)이 20피트 앞으로 다가와야만 차선을 바꾸는 것이었다. 언젠가 가슴 철렁대면서 타봤던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Back to the future의 재판이었으니 철모르는 어린애들이 괴성을 지를만도 하다.

즉 어린애들은 우리의 '용감한' 기사아저씨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사 아저씨는 다른 차들의 운전수를 믿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도의 교통문화는 그야말로 정신의학에서 인격형성에 제일 중요한 basic trust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차뿐만 아니고, 자전거 인력거 삼륜차, 수레, 마차, 우차, 오토바이, 행인은 물론 소나 개 등 발 달린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 적용되는 것이니 (페루나 필립핀 처럼 빈부차가 심한 곳 일수록 교통수단이 다양함), 내가 알아서 피하지 못할 때 상대방이 알아서 피하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인도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운전사는 우리하고 같이 식사하는 법이 없이 일정이 늦었는데도 반드시 '기사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길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식사시간은 대개 9시 2시 8시로 우리하고 2시간씩 늦게 먹는 것과 같은 인도 음식이지만 호텔식은 너무 건조하고 또 너무 깔끔해서 맛이 없다는 것이다. 기사식당이라는 것이 한국의 포장마차 비슷한 것으로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밥과 야채와 카레를 오른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이었다. 막간에 우리도 써비스로 따끈한 chai 한잔씩 얻어 먹었는데, 잔을 씻은 물통을 보니 완전히 걸레를 빨고난 개숫물 이었다.

나는 1978년 3년만에 한국에 돌아가서 포장마차 집에 갔을 때 친구들은 다 잔 소주를 마셨지만 나만 병 소주를 마시면서 "미국에서는 맥주도 다 병째 마시더라"고 옹색한 변명을 했던 기억이 새로웠다.

그런데 이 기사양반이 휴식시간이면 뭔가를 한웅큼 입안에 털어 넣으면서 우물우물 씹길래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씹는 담배란다. 그래서 나도 좀 사달라고 떼를 썼더니 거리에 있는 행상으로 데려 갔는데 여러 종류의 약봉지를 메달아 놓고 팔고 있었다. 한 봉지에 2 내지 5루피(5 내지 15센트)라는데 외국인에게는 안 판다고 한다. 할수없이 가이드한테 좀 사달라고 했더니, 이 친구 정색을 하면서 그걸 사면 자기 밥줄이 떨어진다고 한다. 알고보니 한국의 히로뽕 비슷한 마약으로서 주로 운전사들이 잠 쫓느라고 복용하는데 불순물이 많아 골치만 아프다는 것이다. 그후 Delhi에 와서 같은 물건이 길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 얼마냐고 물었더니 한 봉지에 50 내지 100루피나 내란다. 결국은 "이놈들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씌우는구나"하고 단념하고 말았다. (어느새 체념의 문화를 터득한 고로)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각 나라의 밤문화인데 인도인 가이드는 한마디로 인도에는 밤문화가 없다고 딱 잡아떼는 것이 아닌가. 사람 사는 곳에 밤문화 없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더니, 봄베이나 칼카타 같은 곳에만 내수용이 아닌 외수용 밤문화가 있는것 같다고 한다. 알아보니 봄베이에는 약 인구 1천명당 1명꼴로 소위 public woman(영국인의 business woman, 미국인의 street woman에 비해 얼마나 적절한 영어인가?)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인구 1만명당 1명씩 필요한 정신과 의사에 비해 많다고 할수 없는 숫자인 것이다. (인간은 항상 정신적인 회포를 푸는 것보다 육체적인 회포를 푸는 것에 급급해 왔으므로)

그러나 인도가 세계 최대의 HIV 보유국(약 1천 만명 추산)으로 부상한데 대해 의아해 했는데, 이것은 카쥬라토의 에로틱 신전에 조각된 벽화에서 보듯이 옛날부터 인도에는 성문화의 발달로 동성연애(약 1천 만명 추산), 혼교 또는 수간 등이 성행해 왔던 것으로 납득이 갈만도 하다.

우리 친구 하나는 Delhi에서 첫날 호텔에 투숙하기전에 만난 다 죽은것 같은 아이를 안고 다니는 여자거지한테 멋도 모르고 1불을 주었더니 이 여자가 호텔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귀신같이 알아맞추고 일편단심으로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곤혹을 치뤘는데 동행한 다른 친구 왈 "그 여자 한 3일간 목욕재개 시키면 쓸만하겠는데 왜 그러는가? 잘하면 아들도 공짜로 하나 생길 것이고-" 하고 자신의 희망사항을 피력하기도 했다.

인도 여인들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또 어려서부터 어떤 나무의 줄기로 이빨을 닦아왔기 때문에 치아 하나는 정말 끝내 주는데, 이는 위대한 영도자 모택동 동지의 덕분으로 어려서 너무 많은 양의 불소를 섭취한 결과 이빨이 모두 새까맣게 타 버린 중국 여인들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모택동은 평생 칫솔질을 하지 않았다 함.)

3. 공생의 문화

인도 여행중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인구만큼이나 많은 소들이 아무데나 어슬렁 어슬렁 걸어 다녀도 사람들이 전혀 성가셔 하거나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저자바닥에다 좌판을 벌려놓고 앉아서 채소나 과일을 파는 아줌마들도 소가 입을 들이대고 과일이나 채소를 먹어대도 쫓는 법이 없고, 주인 없는 소가 밥때 자기 집을 찾아오면 저희들 먹을 것은 없으면서도 푸성귀나 곡식을 먹이고 지저분한 것이 묻었으면 정성껏 딱아주고 쓸어주고 하는 것이다.

소는 힌두교의 성스러운 동물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인도사람들은 개, 고양이, 돼지, 염소, 〈다음면에 계속〉

장 례

임 낙 중(59, 메릴랜드)

고별예배가 있던 밤에 그리고 장례를 치르던 날 봄비를 맞으며 하늘도 슬픈가보다 라고 생각했다.

영리한 상객들이 장인의 죽음을 호상이라면서 유족들을 위로했다.

아흔 일곱해를 이승에 머물다 떠났으니 저승길이 너무 이르다고 불평할 염치가 없지만은 보내는 마음이 섭섭하기는 매일반이다.

육십인생이나 구십인생이나 번개불 같은 찰라이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돌아가시기 두어달전 장인은 양노원으로 옮겼다. 마지막 수년간 장인은 눈과 귀를 다 못쓰게 되었지만 처남이 지난 삼월 장인을 양노원으로 모신 이유는 더 이상 처남이 집에서 모시기가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최근에 장인이 양노원에 가겠다고 자청했기 때문이었다.

장인이 진정 양노원에 들어가기를 원했는지 혹은 노인들이 흔히 하는 죽고싶다는 입버릇처럼 마음에 없는 넋두리로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혹은 유별나게 사랑하던 아들의 관심을 더 끌어 보려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아무 쓸모가 없게된 늙은이를 보살피느라 여러해 여행 한번 멀리 못가고 집에 있어 애쓰는 아들과 며느리를 자기 치다꺼리에 매인 속박에서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양노원행을 결심했는지도 모른다.

더 살아야 자식에게 짐일 뿐인데 그렇다고 자기 목숨을 쉽게 끊을 수도 없고 양노원행이 자식들 짐을 더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양노원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답답한 현실도피를 위하여 그렇게 결심을 했을 수도 있다.

장인은 외견상 아무도 찾아뵙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을 빼고는 아무 불편이 없는 아들 집을 나가겠다고 떼를 써 아들과 며느리 속을 썩게 했다.

퇴근후에 들리는 아들과의 짧은 만남이 세상에 유일한 낙이었으며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아들집에서는 privacy가 있었다.

장인이 든 양노원에는 한국 노인들이 많았고 한국인 직원들도 많았으며 음식도 한국 음식이 자주 나와 한국인 사이에 평판이 좋은 양노원이라 어렵게 방을 얻었다.

장인이 양노원 생활에 만족했던 것은 처음 며칠 뿐이고 곧 불평을 늘어놓았다. 방이 병원 병실 같아 privacy가 전혀 없고 대소변을 실수해도 체면이 말이 아니었으며 낯선 사람들의 수중이나 음식 그리고 나이차 학력차 등 모든 것이 못마땅한 룸메이트와 한방을 쓰기가 힘들었다.

한번은 우울증이 있던 룸메이트에게 몹시 맞아 손가락이 부러지고 얼굴에 퍼런 멍이 여러군데 들었다. 유일한 오락인 TV는 눈과 귀가 간 장인에게 있으나 마나였다. 아직 정신이 멀쩡한 의사의 눈에 비친 양노원에 있는 다른 노인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더 실감케 했고 장인은 그들과 쉽게 섞이지를 못했다.

장인은 양노원에서 나가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양노원 직원들이 자기들이 싫다는 장인을 좋아할 리가 없으니 정이 들 수가 없었고 장인에게 양노원은 감옥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눈을 감으면 경응대학 정구대표선수로 박수와 환호속에 정구장을 누비던 시절, 재색을 겸비한 상수련과의 연애와 결혼, 제일 젊은 나이에 경응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던 명예, 큰 아들 성수가 익사했을 때의 비통, 대한외과회장의 명예, 사랑하는 아내를 간염으로 잃은 슬픔, 이런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희미하게 장인의 의식을 거쳐갔을 것이다. 결국은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도 갈 때가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담당 간호원은 노인이 처음 양노원에 들어오면 나가겠다고 반항하는 것이 보통이고 시간이 지난면 적응을 하니 걱정말라고 가족들을 안심시켰고, 가족들은 그말을 믿었고 아니 믿고 싶어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전에 들리니 장인이 밥상에 손을 대지 않은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걱정이 돼서 물으니 간병인들 말로는 그전 끼니는 잘 드셨다고 했다. 거짓말인지 몰라도 식사를 잘 하셨다 하니 믿을수 밖에 없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장인은 또한 아무 말이 없는 조용한 환자로 변해 있었다. 양노원 직원 말대로 good boy가 된 것이다.

나는 장인을 보고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라는 영화에서 Jack Nicholson이 역을 맡았던 Mr. Marpby 생각이 났다.

장인이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생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했고 재미없는 세상에 더 살고 싶은 의욕을 잃어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아보니 곧 기운이 쇠진하고 기운이 쇠진하니 조용해졌을 것이다.

먹지 않으면 생명의 불꽃은 저절로 식을 것이고 일단 기운이 쇠진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편안하게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생명의 불꽃이 꺼지면 영원한 망각(무)로 빠지는 것일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서 먼저 떠난 아내 큰아들 친구 등 모두를 만날까? 그런 생각에 빠져 들었을 것이다.

장인은 입을 다문채 음식을 거절했고 음식을 입에 떠넣으면 사례가 들어 괴뢰워했다. 사례가 계속되더니 호흡장애가 왔고 저녁에 병원으로 옮긴지 몇 시간이 지난 후 숨을 거두었다.

아들과 그냥 살았더라면 백세도 넘길수 있었을 만큼 vital organ은 건강했지만 구십칠세나 백세나 그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의학적 사인은 Regurgitation(음식이 위 대신 폐로 들어감)으로 생긴 폐렴이지만 내 생각에 원인은 다른데 있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의욕을 상실한 것이 죽음을 불러온 원인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신체적 노쇠와 함께 정신도 흐려지면 양노원에 몇 해를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장인처럼 아직 정신은 멀쩡한데 눈과 귀가 가고 대소변을 때때로 남의 도움으로 처리해야할 처지가 되면 인간의 자존심과 존엄성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장인의 처지에 있다 해도 더 살고 싶은 의욕을 잃었을 것이고 목숨을 중단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내가 양노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먹고 자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많은 노인들을 위해 양노원은 꼭 필요한 제도이고 달리 선책이 없는 곳이다.

실은 내가 장인을 모셨더라면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럴 양이면 우선 내 집을 팔고 바꾸어야 했다. 내 집이 이층집이고 거실 욕실이 모두 이층에 있으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또 삼십년 정든 집을 떠나기 어려웠던 것이 내가 장인을 모시지 못한 첫 번째 변명이다.

나도 칠십이 넘은 노인이고 암과 투병하고 나서는 매일 걸어서 골프를 치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구십 노인을 내가 모시려면 내 일과를 포기하여야 하고 거의 풀타임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내가 더 살겠다는 이기심 때문에 내가 장인을 모시겠다고 나서지 못한 것이 내 두 번째 변명이다.

구실은 또 있었다. 장인에게 더 젊고 건강한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사위인 내가 희생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타산이 또 하나의 변명이었다.

내가 미국에서 살다보니 친부모의 말년을 모시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친부모도 모시지 못했는데 장인을 모실 수야 없지 하는 유교적 상대성 도덕론도 하나의 구실이 되었다.

돌아가신 후 생각해보니 내가 장인을 위해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나는 죄인이 되었다. 어떤 죄 값을 치를지 나는 모르지만 피할 생각은 없다.

나도 불원간 양노원에 들어가 장인이 겪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죽은 다음 불효자의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나는 참으로 냉정한 사람이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을 타고 났으며 그 죄값을 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인간이다.

나는 촛불이 다 타고 마지막 남은 심지가 쓰러지면 불꽃이 사라지듯 장인의 인생이 마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장인의 죽음을 모두가 호상이라고 했지만 나는 장인이 더 살고 싶지가 않아 스스로 죽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비를 맞으며 장지에서 발걸음을 돌리는데 다음은 내 차례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너도 가고 나 또한 가야지 하는 '아목동아'라는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전면에서 계속〉 원숭이, 낙타 심지어는 뱀까지도 모든 동물을 해치거나 구박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도 뿌리깊은 윤회사상에 기초를 둔 것으로 인간도 전생이나 후생에서 동물이 되고 동물 또한 장기적으로는 다 한 가족이 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인도사람들 특히 못사는 인도사람들은 잘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단다. 윤회사상에 의하면 현세에서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산 사람들은 내세에 반드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므로 이왕 가난하게 태어난 바에야 조금 더 고행을 하면서 내세를 바라보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연구기관인 Goldman Sachs에 의하면 인도의 경제가 빠르면 2043년 경에 미국을 따라 잡을 것이고 하는데 이는 겉으로 나타난 통계자료에 의한 것으로 내 생각으로는 인도인들의 종교 내지는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나는 인도같이 빈부 차이가 심한 나라에서 왜 공산주의가 발을 못 붙였을까 의아해 했는데 인도에서는 벌써 수 천년 전부터 그들 나름대로 공산주의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즉, 모든 동물과 인간들이 전부 한꺼번에 어울려 살고 있고 못사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잘사는 사람들은 내세에 거지로 태어날 것이므로 오히려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반대로 잘사는 사람들도 못사는 사람들을 별로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잘 도와주지 않는다. 왜(?) 그 사람들 눈에는 다 잘사는 것도 한때, 못사는 것도 한때이기 때문이다.

인도의 성지 바라나쉬에 있는 갠지스 강에서는 하루에도 수 십명씩 화장을 해서 타고 남은 뼈가루를 강물에 뿌리고 그 밑에서는 수 백명이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는데 그 물맛은 찝찔하고 손으로 만져보면 미끈미끈하다. 인도사람들은 인간이 타다 남은 재는 전혀 께름찍한 것도 또 더러운 것도 아니란다.

일찍이 영국의 작가 칼라일이 말한 것 처럼 인간의 육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거룩하고 존엄한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장작이 모자라서(돈이 없어서) 타다 남은 육신도 그냥 강물로 밀어 넣는데 이 또한 물고기들을 위한 크나 큰 보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봉이 김선달이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갠지스 강 강물이 모두 바닥이 났을 것이다 .

집에 와서 지구의를 암만 뱅글뱅글 돌려봐도 역시 인도는 세계의 중심이고 히말라야는 인도의 지붕인데, 중국인들이 자기들이 중화민족, 히말라야를 세계의 지붕이라고 떠벌리는 것은 정말 가소로운 일이다. 이스탄불이 동서 문명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지만 인도의 전통 가곡을 들어보면 동양의 애처로운 가락과 서양의 경쾌한 리듬이 함께 섞여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래도 인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처럼 자기 잘난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인도를 돌아보고 나니. 왜 간디의 비 폭력 '유'저항주의가 성공을 거두었으며, 아직도 남아있는 대가족제도, 그리고 세계 최소의 이혼율 등이 이해가 간다. 아마도 인도사람들은 전생의 원수가 마누라로 태어나고 현세의 자식이 내세의 원수로 태어난다는 것을 믿는 모양이다.

인도 수호신, 인도인의 성령인 소의 눈을 보라. 그렇게 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착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인도 문화는 체념의 문화, 참회의 문화, 순종의 문화, 평화의 문화 그리고 공생공존의 문화인 것이다.

불로장수의 과학

김 승 업(60, 브리티쉬 콜롬비아)

해구신과 노화방지

구약성서 열왕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給底 - 이스라엘의 다비데왕이 불로장수 하기 위하여 젊은 처녀를 데리고 잤다고 한다: " 다윗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하여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시게 하라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서 아릿다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넴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에 데려왔으니 이 동녀는 심히 아름다운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고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 하였더라"

다비데왕의 체온이 떨어져서 몸이 추웠다면 장작을 때어서 실온을 올리면 되는 것이므로 이 열왕기가 정말로 뜻하는 것은 젊은 처녀와 자리를 같이 함으로서 그가 호흡하는 공기 속에 포함되는 '젊음'의 엣센스를 흡수하고 장수하겠다는데 그 진실이 있다. 섹스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비데왕 같은 호색한이 젊은 처자를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플레이 보이 잡지를 창간한 휴 헤프너는 시카고 교외에 자리 잡은 그의 호화주택에 이른바 플레이걸이라는 젊은 미혼의 미녀들을 수십명 모아놓고 플레이 보이 클럽 남자 멤버들과 친지들과 같이 아름다운 음악, 댄스, 음식으로 호화파티를 열어서 구가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비데왕 처럼 '젊음'의 엣센스를 맛보자는 것이라 하겠다. 노인들이 젊은 남녀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섹스를 함으로서 젊음을 되찾으려는 것을 제로코미(Gerocomy)라 한다. 그 동기에는 두가지 뜻이 있는데 그 하나는 젊은 여성과 행동을 같이함으로서 젊음을 함께 느끼고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노화를 지연시키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젊은 이성과 섹스를 하면 성기를 통하여 '젊음'의 엣센스, '젊음'의 정기가 흘러 들어온다는 믿음이다. 섹스가 불안이나 긴장을 풀어내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서 일시적인 수명연장에 효과가 있으나 젊은 이성과의 섹스에 의하여 젊음이 돌아온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미신이라 하겠다. 과거 수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정력이 '젊음'의 근원이라 믿어왔으며 그 엣센스가 남자의 고환 즉 불알 속에 있다고 믿어왔다. 19세기말 독일 겟팅겐대학의 아놀드 벨트루트 박사는 고환 이식과 고환 엑스트락트 주사에 의하여 사람에서 노화방지 요법을 시작하였다. 벨트루트 박사는 거세된(고환을 제거함) 수탉의 복강안에 다른 수탉에서 분리한 고환을 이식하였더니 이 거세된 수탉이 다시 암탉을 쫓아 다니는 것을 보고 고환이식이 남성을 되찾는 길이요, 노화 방지의 길이라 믿은 것이다. 그는 노인들에게 고환 엑스트락트 주사를 시행하여 노화 방지에는 효과가 없었으나 다른 의미로는 근대 호르몬 요법의 창시자가 되었다.

19세기 프랑스의 생리학자 샤르르 브롱세칼은 인도양의 작은섬인 모리셔스섬에 태어나고 의사가 된 다음 하바드 교수와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교수가 된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브롱세칼 교수는 파리생물학회에서 정액 (semen)속에 신경계를 비롯한 신체 각기관에 활력을 주는 물질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브롱세칼 교수는 72세인 자신이 개의 고환 엑스트락트를 10번에 걸쳐서 피하주사 하여 성불능이 치유되었고 평상시의 피로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줌의 방사거리를 측정하여서 주사후의 오줌 방사거리가 주사전 보다 적어도 20% 길어졌다고 하였다. 이 브롱세칼의 고환 엑스트락트의 기적적인 효과는 일반 대중이 오래 믿어왔고 엉터리 의사나 가짜 의사의 좋은 수입원이 되었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알렉산더 폰 펠은 고환의 유효성분을 정제하여 스펠민이라 이름하고 약으로 시판하고 큰돈을 벌었다고 한다.

현대과학의 눈에서 보면 이러한 고환 엑스트락트 즉, 남성 호르몬을 추출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아니한다. 고환에서는 남성호르몬을 만들면 즉시 혈류로 내어 보내어서 고환 자체에는 전혀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고환 엑스트락트는 무의미한 단백질이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해구신'이란 정체불명의 약(?)이 강장정력제 라는 이름으로 시판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 뉴욕이나 로스엔젤스 한인타운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 해양동물인 해구 즉 물개가 하렘처럼 많은 암놈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정력이 왕성하리라는 믿음아래 그러한 해구의 숫놈 성기와 고환을 건조시켜서 정력 강정제로 쓴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짓과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 팽배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정력회복, 불로장수를 가져오는 생약과 생물제제가 수없이 시장에 나와 있어서 바로 사용되어야 할 의료비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텔레비전을 켜면 10개가 넘는 홈쇼핑 채널에서 로얄제리, 영지버섯, 재배산삼, 녹용 등의 그 약효가 전혀 실증되지 않은 생약, 생물제제 광고가 24시간 방송되고 이에 혹한 소비자가 막대한 금액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구유(물개 피부에서 뽑아낸 기름)을 강장제라 파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기름이 보약으로 쓰인다는 것은 사기꾼의 속임수의 하나라 하겠다. 동물지방이 정력강장이나 노화방지에 효력이 있다는 선전에 넘어가서 이를 사서 먹는 일반 대중에 대한 교육을 널리 시행함으로서 민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겠다.

장수노인

2년 전 10월 1일 노인의 날에 한국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 총인구 4,700만 가운데 100세 이상 노인이 1,872명이라 한다.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충청북도 청원에 사는 115세의 할머니라 발표되었으나 뒤늦게 그 노인이 2002년 말에 사망하였다 하여 오보라고 하였다. 한국 정부의 공식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근대국가로서의 한국의 관민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주먹 구구식 구조와 사고방식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무원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개선 되어야 하겠다.

한국에는 100세 이상의 노인이 2,000명 가까이 있다. 지난 2004년 10월 1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최고령자로 확인된 사람은 서울시 청운동에 사는 109세인 최애기 할머니로서 1895년 2월 18일생이라 밝혀진 바 있다. 남자 최고령자는 인천시 구월도에 사는 105세의 정용수 할아버지라 알려진바 있다. 서울의대 박상철 교수팀은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100세 이상으로 확인된 1,296명의 자료를 수집한 뒤 본인, 주위와의 인터뷰를 한 뒤 이러한 한국의 최고령자를 밝혀낸 바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은 누구인가? 생년월일과 사망 년월일이 명백하면 간단하게 대답이 나오겠으나 그것이 간단치가 않다. 왜냐하면 법률상에서 사람을 규정한다는 호적이 대단히 부정확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예컨대 내과학 교수로 유명한 나의 의과대학 2년 선배가 호적상 나보다 2년 늦게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대학을 15세에 입학하고 21세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이 되어서 천재 클라스의 조숙아가 되겠으나 이것이 모두 호적의 장난이다. 이 같이 호적상의 일자를 가지고 장수인을 찾을 수가 없다. 세계기록을 망라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기네스북 (Guiness book)에 의하면 1997년 사망한 프랑스의 칼망 할머니가 122세로 세계의 최장수명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칼망 할머니는 1875년 2월 21일 출생하여 1997년 8월 4일에 사망하였는데 그 나이 85세에 펜싱을 시작하고 100세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이 칼망 할머니가 장수한 비결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전적 요소이다. 칼망 여인의 아버지는 93세 어머니는 86세까지 살았다고 한다. 평균수명이 38세였던 당시의 프랑스에서 부모가 93세와 86세까지 장수하였으니 칼망 할머니는 장수에 유리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그밖에도 최근의 장수자를 보면 지난 2003년 10월 30일 아시아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서 혼고 카마토 노인이 116세 나이로 일본 카고시마에서 사망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자녀가 7명이고 손자와 증손자 모두 34명이라 한다. 옛적에 한국에서는 다섯가지 복 즉 오복을 갖는 것이 인생의 극치라 하였다. 이것은 수복강녕다자손(壽福康寧多子孫) 즉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며, 마음고생 없이, 자식손자들 많이 둔다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하기야 요즈음 우리들도 오복의 마지막 요건인 다자손 빼고는 모두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에서는 불경기가 되어서 30대, 40대에 실직하는 사람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부수하여 사람들의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져서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는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 한다. 전에 없이 젊은 나이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것이 말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이비 종교인들이 나서서 세계의 종말이라 크게 외칠만 하기도 하다. 사람은 몇 살까지 살수가 있는가? 위에서 이야기한 프랑스의 칼망 할머니는 122세까지 살았으니 현재로는 122세가 그 한계가 될 것이다. 다른 동물에서 본다면 흰쥐 (마우스)가 3년, 개가 10년 그리고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선충이 2주일 살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각 동물마다 수명의 한계가 알려져 있는 것이다.

書翰文

최진훈(70)형께.

벌써 7월의 여름 香氣가 가득합니다.

보내주신 초청장과 칼럼집(벽을 향한 소리)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난번 취중의 약속을 잊지 않고 친필의 편지와 함께 손수 보내 주셔서 황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너무 미안스럽게도 피할 수 없는 선약으로 참석을 못해 더욱 죄송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받아 주시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의과대학 시절까지 거스르면 짧지않은 긴 세월이 지났건만 이제 최형의 眞面目을 만난다는 사실이 아쉬움처럼 느껴집니다. 칼럼에 담긴 최형의 진실성과 실천하는 利他의 마음과 지성의 소리에 감동합니다. 집사람과 함께 공감을 나누며 최형의 純粹와 열정을 흠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견고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사신 자취가 가식없이 표현되어 있어 배우는 바가 많았고 막무가내로 우매한 환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친절하고 세밀하게 쓰신 의학칼럼들은 참으로 교육적이었습니다.

전국판 Korean Monitor 등을 통해 더욱 독자를 넓혀 이 컬럼을 다시 읽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경험했지만 한국사람들의 시대역행적인 미신에 근거한 유사한 의학은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살기에 꽤나 불편한 우리 시대에 한결같은 溫情적 사고와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동업인을 보면 무한한 존경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Frost의 The Road Not Taken의 詩를 보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나 회한이 누구에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드물게 어려운 두길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가는 최형의 日常은 저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군요.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Chamber Orchestra를 지휘하며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전율하며 고뇌하는 최형의 모습은 인상이 깊습니다.

지난 모임에서 Mahler의 Symphony와 Bach의 Goldberg Variations을 들으며 느낀 몇가지 의문과 소감을 전문성 있는 해석으로 진지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삶이 詩가 되어 버린 듯한 비범한 세상을 살고 있는 량이와 예리한 문객 창남 등과 더불어 문학과 예술이 交感되는 뉴욕의 친구들이 부럽습니다.

회화적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서량의 세번째 시집 '푸른 절벽'을 읽고 침묵하는 것은 亮이가 이미 마종기 시인과 유유상종하는 巨木의 수준인 탓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언어와 처방전을 양손에 들고 더 깊은 '울림'을 탐색하는 섬세한 감성이 순한 미소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며칠후 그 날 그 자리에 계시던 김영일 兄의 뜻밖의 別世는 무슨 전조인지 생각하면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따뜻하고 지혜롭고 책임감이 강하던 兄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빌 뿐입니다.

人生의 교향악 final movement은 어떻게 연주 하실 것인지 숨 죽여 기대해 봅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가내 모두의 평화와 幸運을 기원합니다.

적은 후원금을 동봉하오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July 7, 2008

Columbia, MD에서

김병오(69) 드림

쪽빛 해안(Cote d' Azur)에서

이 건 일(68, 오하이오)

아침 9시25분 출발 비행기로 밤새 날라, 다음날 아침 파리에 내려, 니스(Nice)행으로 갈아탔더니 오후 2시 반에 니스에 도착했다.

니스 비행장에는 호텔에서 일주일 전에 새로 샀다는 검정색 Mercedes 에 운전사 제복과 모자를 쓴 올리비에(Olivier)가 기다리고 있었다.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았다. 호텔로 가는 길에 그는 우리를 훼라 곶(Cap Ferrat)이 보이는 산등성이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곳 저곳을 보여주며 설명을 해 주었다. 이 집은 Maria Callas가 살았던 집이었다는 등, 저 집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 였다. 파아란 지중해를 굽어 내려다 보는 아름다운 경치와 산 꼭대기라는 위치는 이들 집 값이 천문학적이라는 것만을 짐작케 할뿐 나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Cap Ferrat

에제(Eze) 마을 꼭대기에 있는 옛날 건물의 호텔은 객실들이 이곳 저곳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호텔 후론트 데스크에서 주는 지도를 들고 각자의 방을 찾아가야 하였다. 우리 방은 마을 중심을 지나가는 길 한 옆에, 어느 화가의 아뜰리에와 갤러리 사이에 있었다.

Village d'Eze

지중해 물이 한눈에 들어오는 방의 전망과 프로방스의 색깔들인 오크흐(ochre)색, 빨간색, 오렌지색, 노란색, 올리브색으로 칠해진 벽들. 수직으로 솟아오른 절벽을 깍아서 만든 정원이 보인다. 정원에 가려면 어떻게 내려가느냐고 물었더니 위험하여 문을 닫았으니 보기만 하란다.

안내인이 된 운전사 올리비에의 안내로 산 뒷 쪽 마을인 라 튀흐비(La Turbie)와 쌩뜨 아녜스(Ste. Agnes)로 향하였다. 에제나 라 튀흐비나 다 중세 때 해적이나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마을전체를 외벽이나 시냇물 혹은 강물로 감싸는 형태의 바스티드(Bastide) 식의 마을들인데, 마을 전체를 산꼭대기에 건설하여 방어에 용이하게 만든 것이다. 마을 안의 작은 골목길들은 내가 자랄 때의 서울의 작은 골목들을 연상시키었고, 집과 집 사이 골목의 arch, 빨래터, 분수와 작은 광장, 저만치 보이는 성당의 첨탑. 깍아 지른듯한 산들이 인상 깊었다.

라 튀흐비 마을 한가운데에는 작은 소강당 규모의 로마 시대의 원형 극장(amphitheatre)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벼랑 위에 있었다. 올리비에가 우리를 한쪽 귀퉁이에 앉히더니 자기는 반대편 쪽으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거리는데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 거리는 약 20 미터는 넘게 보였고 또 노천 극장이라 벽이나 천장이 없는데도 소리의 반향 (acoustic)이 그렇게 잘 들리도록 설계된 2000여년 전의 건축물이었다! 다시 로마시절의 건축기술에 감탄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다를 내려다 보며 연극 구경을 하였을 옛 로마인들을 조금은 부러워하며 마을을 떠났다.

쌩뜨 아녜스(Ste. Agnes)는 산꼭대기에 있는 역시 같은 바스티드 식의 작은 중세 마을이었다. 안동처럼, 병산서원처럼 너무 외져서 전쟁의 재해를 피할 수 있어서 잘 그대로 유지된 중세 마을인 것이다. 올리비에의 말에 의하면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넘으면 이태리 땅과 파란 지중해가 보이는 제일 높은 산꼭대기 마을이란다. 그리고 이차 대전 때 독일군을 막기에 무용지물이었던 마지노 선(Maginot Line)의 최남단이 이 마을 밖에 있다고 알려 주고 그 자리를 보여주었다. 다행히도 전쟁은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에 프랑스가 항복하여 비쉬(Vichy) 괴뢰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르와흐(Loire)강 이남은 전쟁의 참화에서 헤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을은 관광객을 의식해서인지 잘 정리되고 유지되어 있었다. 마을에는 상주 인구는 없고 관광철에만 와 있거나 인근 다른 마을들에서 출퇴근을 하는 모양이었다.

Ste. Agnes

다음날 아침 호텔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보고 있으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짙은 쪽 빛 지중해의 바다 물 - 그래서 '쪽빛 해안 (Cote d'Azur)" 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실감이 났다 - 을 내려다보며 오른 쪽으로는 니스의 항구와 멀리 왼 쪽으로는 모나코의 해변을 수 있는 이 해발 4백 미터의 산꼭대기의 마을의 이 최고 전망의 식당. 비싼 돈의 값어치는 있었다. 이 호텔은 지중해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꼭 권하고 싶은 장소이었다.

불과 하루전의 직업에서 받던 스트레스는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고, 병원 일 집안 일들은 다 새까맣게 잊어가고 있었다. 직장의 동료들이 휴가로 어디를 가느냐고 물을때 마다 내 대답은, 'France' '어디?'라고 되물으면, "Provence" 하고는 기 죽으라고 "네 번째 여행이야." 그리고 기 가 더 죽으라고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아마 내가 Alphonse Daudet나 Stendhal이 쓴 책들에 심취했었고, Gogh, Gauguin, Monet, Matisse도 좋아했었고, 그리고 비오는 날 파리 거리를 걷다 들어와서 듣는 Debussy의 피아노 곡들, Ravel 은 또 어쩌고 저쩌고 ....."

이걸 듣고 있던 동료는 언제 사라졌는지 모른다. 이 짧은 인생에 언제 남의 눈치보고 살겠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프랑스에 간다. 된장과 고추장에 길들려진 나는 와인과 치즈를 좋아하기에 간다.

처음 통조림 여행(package tour)으로 유럽을 주마간산(走馬看山) 식으로 구경 한 후 이번이 다섯 번째 프랑스 여행이다. 이 지구상에 가보아야 될 곳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걸 다 볼 수는 없고하여 내가 좋아하는 곳만 골라서 가는 것이다. 아침을 먹고 호텔 입구이자 마을 입구인 대문 밖에 나가 보니 빌린 차가 와서 대령하고 있다. 돈의 힘이 좋긴 좋다.

이 에제(Eze)마을은 니스(Nice)-Monaco - Mote Carlo - Menton 지역을 잇는 해안 도로중 하나인 중(中) 도로(Moyen Corniche)가 지나가는 곳이다. 이 곳 도시들을 연결하는 도로들은 절벽을 뚫어 만든 옛날 해안 도로(Corniche)가 3 개로, 대(大) (Grand Corniche), 중(中) (Moyen Corniche), 저(低) (Basse Corniche)가 있고, 산 맨 꼭대기에 새로 건설한 A8 고속도로(Auto route)가 뚫려 있다. 이 중(中) 해안도로(Moyen Corniche)는 모나코 왕비였던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더 유명하여 졌고, 아이로니칼 하게도 그녀 자신이 케리 그랜트(Cary Grant)와 같이 주연하였던 히치콕 감독의 영화 'To catch a thief' 에 배경으로 등장 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해안도로(Corniches)

중(中) 코니시를 택하여 모나코(Monaco)로 향 하였다. 좁은 2차선 찻길이라 여간 혼잡 하지 않다. 왕궁이 있는 곳이 모나코이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시가 그 유명한 카지노가 있는 몬테 칼로(Monte Carlo = Mount Charles)이다. 왕궁 앞 해양 박물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박물관 관람은 생략하고, 자동차로 된 관광 열차를 탔다. 모나코는 그리말디(Grimaldi)가문이 지배하는 소 공국(公國; Duchy)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 유명한 그레이스 켈리와 결혼했던 Ranier III 가 살았던 바로 그 곳 이다. 세금이 없어서 유럽의 부자들이 옮겨와 사는 곳, 카지노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살림을 꾸리는 나라. 외교, 국방, 재정 다 프랑스에 의존 하는 나라이다. 이 두 도시는 바로 바닷가 절벽에 의지하고 발달된 곳으로 경치는 기가 막히게 좋다. 그러나 비싼 땅값 때문에 너무 많은 고층 건물들을 바닷가에 바싹 붙여 지어 놓고, 산꼭대기에는 부자들의 별장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 좋은 자연 경관을 망치고 있었다. 꼭 우리 나라 어디를 보는 것 같았다. 돈 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려고 드는 심리는 양(洋)의 동서고금(東西古今)이 없나보다. 올리비에의 말에 의하면 이 근처 리비에라(Riviera) 해안은 부동산 가격이 빠리(Paris)와 비슷하다고 한다. 특히 모나코 왕국내에서는 더 비싸다고 한다. 세금이 없으니까.

모나코 풍경

모나코 왕궁은 영국 런던의 영국왕궁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소규모의 위병 교대식을 보고 거리 구경을 잠시 한뒤에 하도 날씨가 덥기에 맥주 한잔을 마시고는 떠났다. 해안을 바짝 따라서 달리는 저(低)코니시(Basse Corniche)를 타고 니스 현대 미술관으로 향했다. 마누라와 나는 약속이 되어 있다. 박물관, 미술관은 최대 두시간 이내에 관람을 마치기로. 그 이상 시간을 끌면 골치도 아파지고 무엇을 보았는지도 모르게 되니까. Musee des Beaux-Arts (Musee J. Cheret) 에는 Raoul Dufy (1877-1953)를 비롯하여 Claude Monet, Alfred Sisley, Pierre Bonnard, Eugene Boudin 등의 그림들이 많이 소장 되어 있어서 볼것이 많았다. 그리고 건물 자체와 정원이 또 하나의 예술품이었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 나서

마누라가 자꾸 니스 뒷쪽 산꼭대기 마을에 있는 교회에 소장된 그림들을 보고 싶다고 하므로, 지도를 열심히 공부한 뒤에 빼이으(Peille), 빼이용(Peillon) 마을로 향하여 길을 떠났다. 어제 왔던 생트 아녜스 마을로 가다가 옆 길로 들어섰다. 한참을 꼬불 꼬불한 산길을 달리다 보니 홀연히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이 보인다. 빼이으 마을 교회는 오래되었고 보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또 그림도 없어서 실망하고 나와 산길을 타고 내려오다 다시 마을을 올려다 보니 마을 한 가운데에 돌로 된 원형 건물이 보였다. 차를 돌려 마을로 들어가 주차를 하고 험한 경사의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서 마을 중앙의 조그만 광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원형 건물은 시청 건물 이었고 그 앞의 계단에 대 여섯 살 먹어 보이는 사내아이와 계집 아이가 나란히 앉아서, 열심히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아 ! 지금 이 마을은 낡았고 중세같이 느껴지지만 지금은 중세가 아니고 21세기이지 하며, 목이 마르기에 마을에 하나 밖에 없는 제과점에 들어가 병에 들은 물 두 병을 샀다. 파리가 붕붕 나르는 시골 점포. 손님도 하나도 없고. 마을의 대체적인 풍경은 이상의 수필 '권태'를 기억 해 내게 만들었다. 제과점 여주인은 영어를 못하고 내 프랑스어 실력은 형편 없었으나 손 발짓으로 의사 해결이 되었다. 내가 프랑스에 여행 간다고 하면 다들 꼭 물어보는말이"Can you speak French?" 이다. 프랑스어를 못 하면 어떠냐. 어떡하던 해결이 되는데. 순 배 째라식으로 드리대면 다 되는 법이다. 아니 사실은 여행 할곳에 대하여 역사, 지리, 풍물, 음식 등에 관한 책을 읽고, 인터넷 을 뒤져서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현지에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대충 눈치로 다 해결이 될수 있는 것이다. 공부를 안하고 가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인생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제공한다고 나는 믿는다.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기회가 왔다 지나 가는 것도 모르는 법이다. 기회의 여신은 머리털이 앞에만 나 있어서 가까이 올때 잡아 채어야지 지나가면 뒷 머리는 번대머리이라 잡아 쥘 머리 털이 없다고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있다. 사람들이 흔히 "요다음 기회에 또 하면 되지 뭐."라고 말 하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는 법이다. 너무 성급한 결정도 좋지 않지 만은 우유부단(優柔不斷)한 성질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 하는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놓지는 것을 많이 본다.

빼이으 마을을 빠져 나와 꼬불 꼬불한 산길을 아슬아슬하게 운전 하여 빼이용 마을로 향하였다. 이 곳 역시 산 꼭대기에 있는 중세마을. 험한 산길은 앞의 마을로 갈때 보다 더 심하였다. 마을 밑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가야 하였다. 우선 교회를 구경 하고 마을을 한바퀴 둘러 보고 내려 오는데 골목길과 골목길 사이의 아취(Arch)가 아름답다. 마누라가 보기 원하던 벽화는 교회 안에 있었으나 너무 낡아서 그림 형태를 알아 보기 힘 들었다.

호텔로 돌아와 저녁을 호텔 식당에서 먹었다. 나는 토끼 요리를 집사람은 비둘기 요리를 시켰다. 이 쪽 지방에서는 옛날 부터 비둘기를 많이 키웠다. 두 가지 목적이었는데 하나는 우편배달 용이고 다른 목적은 식용이었다. 그래서 닭요리 대신 비둘기 고기가 음식점 메뉴에 항상 올라 있는 것이다. 요리는 그저 그랬으나 오른쪽은 니스, 왼쪽은 멀리 모나코의 불빛을 보며 즐기는 식사는 최고급의 분위기 이었다.

식사중 마신 포도주로 약간의 취기를 느끼며 밤에 마실 물병을 꾀어 차고 지중해 해안의 밤 하늘과 거기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알펑스 도데의 단편소설 '별(Etoile)'에 나오는 것 같은- 별 들을 보면서 좁은 에제(Eze)마을의 골목길을 걸어 방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 쪽빛 해안의 하루가 또 저물어 갔다.

2009 ANNUAL CONVENTION

July 4th(Sat.) ~ July 8th(Wed), 2009
Ritz Carlton Hotel
Dearborn, Michigan

2009년도 Annual Convention 미시간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Hotel room rate $125로 확정되었으며
Golf는 Michigan TPC (Senior Open Venue),
Dearborn Country Club(구 Senior Open Venue)과
Lakes of Taylor Golf Course(Arthur Hill design)에서
칠수있도록 교섭중입니다.
또 non-golfer를 위해서 Ritz Carlton Hotel의
chef들로 부터의 culinary class를 준비할 계획이며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여러분을 모실 계획입니다.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서울의대미주동창회 회장 윤 효 윤

새 서울의대 동문 홈피, SNUMA Website (www.snucmaa.us)

서울의대 동문 제위:

2006년대 조동준 회장님에 의해서 시작된 우리 동문 홈피가, 2007년대 최영자 회장님의 노력으로, 두번째 홈피인 www.snucmaa.us가 열린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홈피를 열면서 언제나 걱정되는 문제점은, "과연 동문들이 얼마나 참가할가?" 였었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두달간의 운영 결과에 의하면, 생각보다 많은 동문들이 참가해 주셔서, 앞으로 계속 발전할 기회가 있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난일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 동문들이 모여서 서로 담화할 수 있는 사랑방을 마련 하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달동안, 참석해주신 여러 선배, 후배 동문님들의 덕택과 노력으로, 이미 천천히 그 목표가 달성되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홈피에 들려보신 일이 없으신 동문께서는 한번 꼭 들리셔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et Explorer에서 상단의 주소칸에 www.snucmaa.us 만 치시고 enter를 치시면, 어느 나라에 어디에 사시던간에, 곧 우리 홈피에 들어 오시게 됩니다. 들어 오신후에 여기 저기, 지금과 예전의 웹 페이지를 들추어 보십시요.

종전의 홈피나 다른 의대 계통의 홈피보다는 다양한 우리의 인간적인 생활을 반영하는 홈피라는 것을 아시게 될것 입니다. 여기에 쓰시는 화제에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 배달로 오는 '시계탑' 뉴스를 여기에 다시 올리며 보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여기에 오셔서 이미 지나간 시계탑 뉴스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동문 주소록은 현재 자료가 없어서, 완성이 안되고 있는데, 자료가 모이는대로 현재 몇년만에 한번 발간되는 '동문 주소록' 책자와 같게 만들 예정이며, 디지탈 형식으로 되어, 쉽게 검색(Search)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동시에 주소록 책과는 달리, 현재시간(real time)으로 주소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각 졸업반의 대표님들의 협조를 받어, 곧 이 명단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문 홈피는 미주 서울의대 동창회와 연결되어 있지만, 운영체재는 미국과 한국은 물론, 어디에 사는것과는 관련없이, 모든 서울의대 동문,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또 서울의대 동문이 아닌 초청 손님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쓰시는 언어는 한글이건 영어이건 제한없이 편하신대로 쓰시면 됩니다.

2008년 12월까지 실험적으로 운영하며, 만일 참가하시는 동문들이 많고, 이 동문 홈피의 존재가 동문들께 가치가 있는것으로 고려되면 그 이후로도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홈피를 쓰시는 방법:

원래 Microsofr Internet Explorer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mozilla Firefox나 Opera와는 잘 맞지않고 Internet explorer 계통의 Browser와 잘됩니다. Internet Explorer에서 상단 메뉴칸의 주소칸에 www.snucmaa.us를 넣으시고, 그 옆의 초록색 화살표나 "Enter" 키를 클릭하시면, SNUMA Website의 Index page로 들어 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상단 사진밑에 있는 여러 Board(게시판) 중의 하나를 골라서 클릭하시면 각 게시판으로 가실수 있습니다.

SNUMA Website의 핵심은 '동문 자유게시판 - Alumni Freeboard'입니다. 여기가 사랑방 정보 교환의 중심이 되며, 여기를 보시면 대개 우리 홈피의 거의 전부를 보실수 있습니다.

그림밑 왼쪽에 있는 등록장소 (로그인)에서 "Join"을 클릭하시면 등록 페이지에 들어오며, 여기서 안내를 읽으시며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홈피를 그냥 읽기만 하실려면 등록을 안하셔도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동문 주소-명단 게시판'에는 '정보 안전-보호'의 조치로 들어 오실수 없습니다. 일단 등록하시고 나면, 운영자로 부터 약 24시간안에 확인-인증 E-Mail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후에는 글을 쓰실수 있고, 어디나 보실수 있습니다.

SNUMA Website 운영자 올림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